

CHAPTER

06

2022학년도 수능 기출

[1~3]

문단 단위 해설 - #1문단

어떤 독서 이론도 이 한 장의 사진만큼 독서의 위대함을 분명하게 말해 주지 못할 것이다. 사진은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처참하게 무너져 내린 런던의 한 건물 모습이다. 폐허 속에서도 사람들이 책을 찾아 서가 앞에 선 이유는 무엇일까? 이들은 갑작스레 닥친 상황에서 독서를 통해 무언가를 구하고자 했을 것이다.

사진과 함께 독서와 관련된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독서를 통해 무언가를 구하고자 했을 것이라고 하니, 또 독서의 정의나 기능,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이 등장하겠죠. 계속 읽어봅시다!

#2문단

독서는 자신을 살피고 돌아볼 계기를 제공함으로써 어떻게 살 것인가의 문제를 생각하게 한다. 책은 인류의 지혜와 경험이 담겨 있는 문화유산이며, 독서는 인류와의 만남이자 끝없는 대화이다. 독자의 경험과 책에 담긴 수많은 경험들의 만남은 성찰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독자의 내면을 성장시켜 삶을 바꾼다. 이런 의미에서 독서는 자기 성찰의 행위이며, 성찰의 시간은 깊이 사색하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시간이어야 한다. 이들이 책을 찾은 것도 혼란스러운 현실을 외면하려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 대한 숙고의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독서는 성찰의 계기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1문단에서 제시된 사진 또한 같은 맥락이고요. 책에는 인류의 지혜와 경험이 담겨있고, 독서는 인류와의 만남이자 대화라고 합

니다. 즉, 독서를 하면서 인류의 지혜와 경험을 통해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것이네요. 2차 세계 대전 이후 '삶에 대한 숙고의 시간'을 위해 책을 찾았다고 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결국엔 '독서'의 기능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3문단

또한 독서는 자신을 둘러싼 현실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논리와 힘을 지니게 한다. 책은 세상에 대한 안목을 키우는 데 필요한 지식을 담고 있으며, 독서는 그 지식을 얻는 과정이다. 독자의 생각과 오랜 세월 축적된 지식의 만남은 독자에게 올바른 식견을 갖추고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모색하도록 함으로써 세상을 바꾼다. 세상을 변화시킬 동력을 얻는 이 시간은 책에 있는 정보를 이해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보가 자신의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타당한 정보인지를 판단하고 분석하는 시간이어야 한다. 서가 앞에 선 사람들도 시대적 과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책에서 찾으려 했던 것이다.

이번에도 독서의 '기능'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독서는 문제 해결력을 기르게 하는 힘이 있다고 하네요. 세계 2차 대전 이후 사람들이 책을 찾던 것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라는 점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식을 통해 식견을 얻고, 문제 해결 방법을 찾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죠?

그리고 1문단에서 제시된 사례가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문에서 언급할 때마다 반응하면서 내용을 이해합니다. 또 여기서는 기능만 언급하는 게 아니라 독서 방법에 대한 내용도 등장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책을 읽

을 때, 그냥 정보를 이해하는 게 아니라, '타당한 정보'인지 판단하고 분석해야 한다고 해요. 단순히 읽기만 하는 게 아니라, 정보를 능동적으로 판단할 줄 알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4문단

독서는 자기 내면으로의 여행이며 외부 세계로의 확장이다. 폐허 속에서도 책을 찾은 사람들은 독서가 지닌 힘을 알고, 자신과 현실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자 책과의 대화를 시도하고 있었던 것이다.

첫 번째 문장이 핵심입니다. 독서가 '성찰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는 '자기 내면으로의 여행'이고 문제 해결의 방법을 제공한다는 점에서는 '외부 세계로의 확장'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비유적인 재진술을 잘 파악하셔야 해요. 그렇게 앞에서 제시한 독서의 두 가지 기능을 요약하면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재진술 문단 이죠. 참, 독서를 통해 문제 해결 방법을 얻을 땐 타당성을 따지며 판단해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맙시다.

1. 뒷글을 바탕으로 할 때, ㉠의 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 ㉡

㉠ 폐허 속에서도 사람들이 책을 찾아 서가 앞에 선 이유는 무엇일까?

- 화제 그 자체에 대해 묻는 문제입니다. 삶을 성찰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지요? 이게 독서의 두 가지 기능이었잖아요. 이 포인트를 기억하고 선지를 봐야 합니다.

㉠ 인류의 지혜와 경험을 배우기 위해

→ 네, 책에는 인류의 지혜와 경험이 있고 그걸 읽으면서 삶을 성찰합니다.

㉡ 현실로부터 도피할 방법을 구하기 위해

→ 현실로부터 도피하는 게 아니라, 삶을 숙고하기 위해 독서를 하는 것이죠? 지문에서 내놓고 언급하기도 했어요. 간단합니다. 독서의 첫 번째 기능을 잘 이해했는지 묻는 선지입니다.

㉢ 시대적 과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찾기 위해

→ 독서의 두 번째 기능이었죠.

㉣ 자신의 삶에 대해 숙고할 시간을 갖기 위해

→ 이건 첫 번째 기능이었구요.

㉤ 세상에 대한 안목을 키우는 지식을 얻기 위해

→ 두 번째 기능과 관련된 내용을 묻는 선지입니다. 독서를 통해 지식을 얻고, 식견을 갖추고 문제 해결 방법을 깨닫게 된다고 했습니다.

2. <보기>는 ㉠과 같이 독서하기 위해 학생이 찾은 독서 방법이다. 이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정답 : ㉤

㉤ 독서는 자신을 둘러싼 현실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논리와 힘을 지니게 한다.

- 독서의 두 번째 기능과 관련된 내용이 <보기>로 제시 되겠습니다. 지문의 내용을 떠올리면서 <보기> 읽어봅시다!

— <보 기> —

해결하려는 문제와 관련하여 관점이 다른 책들을 함께 읽는 것은 해법을 찾는 한 방법이다. 먼저 문제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하고, 이와 관련된 서로 다른 관점의 책을 찾는다. 책을 읽을 때는 자신의 관점에서 각 관점들을 비교·대조하면서 정보의 타당성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평가한 내용을 통합한다. 이를 통해 문제를 다각적·심층적으로 이해하게 됨으로써 자신의 관점을 분명히 하고, 나아가 생각을 발전시켜 관점을 재구성하게 됨으로써 해법을 찾을 수 있다.

- 독서의 두 번째 기능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독서는 문제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대신 그 정보가 타당한지 검토해야 한다고 했죠. 여기서도 비슷한 내용이 등장하네요. 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 가지의 관점을 볼 때, 문제를 먼저 인식하고 관련된 관점을 비교·대조하면서 타당성을 확인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생각을 발전해 관점을 재구성해야 하고요. 결국엔 능동적으로 각 관점을 수용하라는 것이죠.

① 읽을 책을 선택하기 전에 해결하려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인식해야겠군.

→ <보기> 내용 그대로입니다. 문제를 인식하는 게 우선입니다.

② 서로 다른 관점을 비교·대조하면서 검토함으로써 편협한 시각에서 벗어나 문제를 폭넓게 보아야겠군.

→ 이것도요... 자신의 관점을 재구성하라고 했으니 편협한 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볼 수 있겠죠.

③ 문제의 해결을 위해 서로 다른 관점을 비판적으로 통합하여 문제에 대한 생각을 새롭게 구성할 수 있어야겠군.

→ 마찬가지입니다. 비판적으로 보고 자신의 관점을 재구성하라고 했어요.

④ 정보를 이해하는 수준을 넘어, 각 관점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평가 내용을 통합함으로써 문제를 깊이 이해해야겠군.

→ 그렇죠. 이해만 하면 안 되고, 그 정보의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보기>에서도 관련 내용이 언급되었고요.

⑤ 문제에 대한 여러 관점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비판적 판단을 유보함으로써 자신의 관점이 지닌 타당성을 견고히 해야겠군.

→ 이걸 사실상 <보기>만 잘 읽어도 풀어낼 수 있는 선지입니다. 비판적 판단을 유보하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관점의 타당성을 견고히 하는 것도 아니죠. 자신의 관점에서 다른 관점을 비판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자신의 관점을 재구성해야 한다고 했으니까요. 지문에서도 정보의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으니, 비판적 판단을 유보한다는 건 적절하지 않습니다.

3. 다음은 윗글을 읽은 학생의 독서 기록장 일부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 : ①

- 역시나 독서와 관련된 내용이 등장하겠죠? 삶을 성찰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독서! 그리고 타당성 검토와 같은 독서 태도도 기억합니다.

나의 독서 대부분은 정보 습득을 위한 것이었다. 책의 내용이 그대로 내 머릿속으로 옮겨져 지식이 쌓이기만을 바랐지 내면의 성장을 생각하지 못했다. 운동주 평전을 읽으며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이 시간이 나에 대해 사색하며 삶을 가꾸는 소중한 시간임을 새삼 느낀다. 오늘 나는 책장을 천천히 넘기며 나에게로의 여행을 떠나 보려 한다.

- 네, 삶에 대한 '사색'을 언급합니다. 독서의 첫 번째 기능과 관련된 내용이네요. 독서는 삶을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했죠? 포인트 기억하고 선지 판단 하러 가봅시다.

① 삶을 성찰하게 하는 독서의 가치를 깨닫고 이를 실천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네, 성찰에 대한 내용! 이게 핵심이죠. 성찰을 위한 독서를 하고자 하니깐요.

- ② 문학 분야에 편중되었던 독서 습관을 버리고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으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 이전까지의 독서가 정보 습득이 주된 목적이었던 점을 반성하고 있습니다. 문학 분야에 편중됐다는 말은 전혀 드러나지 않죠.

- ③ 독서를 지속적으로 실천하지 못한 태도를 반성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장기적인 독서 계획을 세우고 있다.

→ 독서를 지속적으로 하지 못했다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독서 계획을 세운다는 내용도 딱히 드러나지 않구요.

- ④ 내면적 성장을 위한 도구로서의 독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독서의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 사색이나 성찰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내면적 성장으로서의 독서가 중요하다는 건 맞는데, 다양한 매체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습니다.

- ⑤ 개인의 지적 성장에 머무는 독서의 한계를 지적하고 타인과 경험을 공유하는 독서 토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 일단 기록장에는 '사색'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성찰하는 게 핵심이죠. 토론의 필요성은 짚소리네요.

[4~9]

문장 단위 해설 - #(가) 1문단

(가)

정립-반정립-종합. 변증법의 논리적 구조를 일컫는 말이다. 변증법에 따라 철학적 논증을 수행한 인물로는 단연 헤겔이 거명된다. 변증법은 대등한 위상을 지니는 세 범주의 병렬이 아니라, 대립적인 두 범주가 조화로운 통일을 이루어 가는 수렴적 상향성을 구조적 특징으로 한다. 헤겔에게서 변증법은 논증의 방식임을 넘어, 논증 대상 자체의 존재 방식이기도 하다. 즉 세계의 근원적 질서인 '이념'의 내적 구조도, 이념이 시·공간적 현실로서 드러나는 방식도 변증법적이기에, 이념과 현실은 하나의 체계를 이루며, 이 두 차원의 원리를 밝히는 철학적 논증도 변증법적 체계성을 지녀야 한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헤겔의 변증법이 무엇인지 파악하기도 힘들 뿐더러 용어들이 추상적입니다. 내용도 어려운데 말이죠. 또, 재진술 문장이 있긴 하지만 그마저도 추상적이네요. 기본적인 태도는 똑같습니다. 키워드, 화제 잡고 재진술을 바탕으로 이해해야 해요. 그런데 그 과정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바로 문장 단위 해설을 통해 이해해봅시다.

(가)

정립-반정립-종합. 변증법의 논리적 구조를 일컫는 말이다.

두 개 한 번에 볼게요. 일단 핵심 키워드는 '변증법'이겠죠? 그런데 문장이 아주 불친절해요. '정립-반정립-종합'이 지문에서 제시한 변증법의 정의입니다. 딱 보고 바로 이해하는 게 불가능해요. 각 용어들을 정확히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단어 뜯기를 바탕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씩 이해해봅시다. 일단 정립과 반정립이 대비되는 키워드라는 점을 체크해야 합니다. '정립'과 '반/정립'이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종합'이 있어요. 서로 반대되는 두 개가 '종합'된다는 말인가 봅니다. 이게 변증법인가봐

요. 그리고 이게 어떤 '논리적 구조'인지도 확인해야겠어요. 변증법이 뭔지 모르는 우리는 키워드 자체의 의미를 통해 최대한 추측하고 내용을 받아들이고 넘어가야 합니다. 시작부터 쉽지 않네요. 계속 읽어 보겠습니다.

변증법에 따라 철학적 논증을 수행한 인물로는 단연 헤겔이 거명된다.

헤겔의 변증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게 핵심이겠네요. '정립-반정립-종합'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앞에서 이해한 내용을 머릿속에 박아두고 들어가야 합니다.

변증법은 대등한 위상을 지니는 세 범주의 병렬이 아니라, 대립적인 두 범주가 조화로운 통일을 이루어 가는 수렴적 상향성을 구조적 특징으로 한다.

헤겔의 변증법에 대한 속성을 제시하는 문장입니다. 여기서 '수렴적 상향성'에 대한 내용을 읽을 때 '정립-반정립-종합'을 떠올리면서 이해해야 해요. 정의와 속성을 연결하면서 읽는 태도! 기억나시죠?

하나씩 봅시다. '수렴적 상향성'은 '대립적인 두 범주'가 '조화로운 통일'을 이루는 게 중요합니다. 말 그대로 조화로운 통일로 '수렴'하는 게 수렴/적 상향성이네요. 그런데 여기서 '대립적인 두 범주'와 조화로운 '통일'을 읽으면서 각각 '정립-반정립', '종합'을 떠올리셔야 합니다. 정립과 반정립은 서로 대립되는 두 범주에 해당하고, '종합'은 말 그대로 두 범주를 '종합'한다는 의미이니, '통일'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결국 변증법은, '정립-반정립'이라는 대립되는 두 범주가, 조화롭게 '종합'되는 것이네요. 조금 쉬운 예시를 들면서 이해해보자면, '종합'이라는 건 '절충'과 비슷한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찬성-반대'와 같이 '대립되는 두 범주'가 토론이나 토의를 통해 조화로운 절충안을 내놓는 그런 경우를 떠올리면서 이해해주시면 그나마 이해해볼 법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건, '수렴적 상향성'을 읽으면서 '정립-반정립-종합'을 떠올리면서 이해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정말 어렵지만 기본적인 태도를 바탕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헤겔에게서 변증법은 논증의 방식임을 넘어, 논증 대상 자체의 존재 방식이기도 하다.

오잉 이건 또 무슨 말일까요? 헤겔의 변증법은 '논증 대상' 자체의 존재 방식이다... 뒤에서 바로 재진술 문장이 제시되니 우선 뒷 문장까지 같이 본 후에 설명하겠습니다.

① 즉 세계의 근원적 질서인 '이념'의 내적 구조도, 이념이 시·공간적 현실로서 드러나는 방식도 변증법적이기에, ② 이념과 현실은 하나의 체계를 이루며, 이 두 차원의 원리를 밝히는 철학적 논증도 변증법적 체계성을 지녀야 한다.

네, 애가 재진술 문장입니다. 그런데 재진술 문장조차도 어렵습니다. 문장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 끊어서 보겠습니다.

① 즉 세계의 근원적 질서인 '이념'의 내적 구조도, 이념이 시·공간적 현실로서 드러나는 방식도 변증법적이기에,

'이념'의 정의와 함께 속성까지 한 번에 제시합니다. 이념의 정의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건 속성이예요. 이념의 '내적 구조'와 이념이 '현실로 드러나는 방식'이 모두 변증법적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념의 내적 구조와 '존재 방식'이 모두 '변증법적'이라는 겁니다. 이념이 시·공간적 현실로서 드러나는 방식이 곧 이념의 '존재 방식'이니깐요! 참, 여기서 '변증법적'이라는 말은 수렴적 상향성을 지닌다는 말이겠죠? 대립적인 두 가치가 '종합'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변증법적으로 존재한다는 건 '대립적인 두 범주'를 종합하는 건데, 그 두 범주는 무엇인지 그게 궁금하실 거예요. 그걸 ②번 절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② 이념과 현실은 하나의 체계를 이루며, 이 두 차원의 원리를 밝히는 철학적 논증도 변증법적 체계성을 지녀야 한다.

‘이념’과 ‘현실’이 하나의 체계를 이룬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념’은 세계의 근원적 질서를 뜻한다는 점 다들 기억하고 계시죠? 즉, ‘이념’은 추상적인 대상입니다. 반면 ‘현실’은 그러한 이념이 ‘경험적으로 구체화되는’ 시·공간(대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추상적이나 구체적이나’라는 점에서 ‘이념’과 ‘현실’은 대립적인 두 범주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념의 내적 구조도, 그것의 존재 방식도 변증법적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이 두 차원(이념과 현실)에 대한 논증도 ‘변증법적 체계성’을 가져야 한다고 하네요. 즉, 이념과 현실을 논증할 때는 두 범주를 조화롭게 종합해야 한다, 수렴적 상향성을 가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기까지 읽었다면 앞 문장의 내용을 다시 살펴봅시다! 두 문장을 연결해서 읽는다면 변증법의 대상이 ‘이념’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변증법은 논증 방식이자, 세계의 근원적 질서가 존재하는 방식이기도 하다는 말이네요. 즉, 헤겔은 변증법을 통해 세계의 본질(근원적 질서) 자체를 설명할 수 있다고 본 것이네요. 이념의 구성 방식(내적 구조)도, 존재 방식도 다 변증법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가) 2문단

헤겔은 미학도 철저히 변증법적으로 구성된 체계 안에서 다루고자 한다. 그에게서 미학의 대상인 예술은 종교, 철학과 마찬가지로 ‘절대정신’의 한 형태이다. 절대정신은 절대적 진리인 ‘이념’을 인식하는 인간정신의 영역을 가리킨다. 예술·종교·철학은 절대적 진리를 동일한 내용으로 하며, 다만 인식 형식의 차이에 따라 구분된다. 절대정신의 세 형태에 각각 대응하는 형식은 직관·표상·사유이다. ‘직관’은 주어진 물질적 대상을 감각적으로 지각하는 지성이고, ‘표상’은 물질적 대상의 유무와 무관하게 내면에서 심상을 떠올리는 지성이며, ‘사유’는 대상을 개념을 통해 파악하는 순수한 논리적 지성이다. 이에 세 형태는 각각 ‘직관하는 절대정신’, ‘표상하는 절대정신’, ‘사유하는 절대정신’으로 규정된다. 헤겔에 따르면 직관의 외면성과 표상의 내면성은 사유에서 종합되고, 이에 맞춰 예술의 객관성과 종교의 주관성은 철학에서 종합된다.

화제가 구체화되는 문단입니다. 헤겔의 변증법을 미학, 그 중에서도 ‘예술’에 초점을 맞추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 과정에서 종교와 철학이 함께 등장합니다. 여기서 ‘변증법’을 떠올리면서 읽었다면 정말 잘 읽으신 겁니다. 또, 예술, 종교, 철학/직관, 표상, 사유를 각각 군집화하면서 읽어야 했고, 각 범주 간 비교지점도 잡아야 해요. 생각을 많이 해야 하면서 출제 포인트가 많이 숨어있기도 한 문단입니다. 하나씩 천천히 볼게요.

헤겔은 미학도 철저히 변증법적으로 구성된 체계 안에서 다루고자 한다.

첫 번째 문장을 보고 바로 화제를 구체화시켜 줘야 합니다. 변증법에 대한 내용을 ‘미학’에 초점을 맞추어서 설명하겠네요. 변증법의 핵심인 ‘정립-반정립-종합’, ‘조화로운 통일’은 머릿속에 집어넣고 읽어봅시다.

그에게서 미학의 대상인 예술은 종교, 철학과 마찬가지로 ‘절대정신’의 한 형태이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 더 화제가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미학 중에서도 ‘예술’에 대해 설명하려고 하나봅니다. 그 과정에서 ‘종교’, ‘철학’도 함께 등장하네요. 범주가 3개입니다. 슬슬 감이 오시죠? 또, 애네들은 ‘절대정신’의 한 형태라고 하는데, 절대정신이 뭔지를 알려주지 않네요. 뒤에서 확인하면서 이해해봅시다.

절대정신은 절대적 진리인 ‘이념’을 인식하는 인간정신의 영역을 가리킨다.

바로 절대정신이 무슨 뜻인지 설명해주네요. 애는 ‘이념’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 예술, 종교, 철학이 절대적 진리인 이념을 인식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라는 뜻이네요. ‘인식 대상’이라는 비교지점에 대해서는 세 범주가 같습니다. 비교지점 잡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념’의 정의가 ‘절대적 진리’라는 말로 재진술되었는데, ‘세계의 근원적 질서’랑 비슷한 의미이니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겠죠?

예술·종교·철학은 절대적 진리를 동일한 내용으로 하며, 다만 인식 형식의 차이에 따라 구분된다.

꽤 중요한 문장입니다. 예술, 종교, 철학의 공통점을 언급해주는 동시에 차이점을 제시하겠다고 언급하고 있어요. ‘인식 대상’은 이념으로 같지만, ‘인식 형식’은 다르고 합니다. 앞 문장에서 비교지점(공통점)을 떠올리지 못했다면 여기서 ‘인식 대상’과 ‘인식 형식’이라는 두 비교지점을 모두 잡아주셔야 합니다. 앞에서 공통점을 파악했다면 ‘인식 형식’이라는 비교지점만 잡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럼 예술, 종교, 철학이 어떻게 ‘인식 형식’에서 다른지 그걸 확인해야겠습니다.

절대정신의 세 형태에 각각 대응하는 형식은 직관·표상·사유이다.

‘절대정신의 세 형태’는 곧 ‘예술, 종교, 철학’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여기에 대응하는 형식이 ‘직관, 표상, 사유’라고 합니다. ‘예술-직관’, ‘종교-표상’, ‘철학-사유’ 이렇게 군집화할 수 있겠죠? 꼭 생각하고 넘어갑시다. 형식이 각각 다르네요. 어떻게 이 형식이 다른지 뒤에서 설명할 테니 각 형태 간 차이점도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직관’은 주어진 물질적 대상을 감각적으로 지각하는 지성이고, ‘표상’은 물질적 대상의 유무와 무관하게 내면에서 심상을 떠올리는 지성이며, ‘사유’는 대상을 개념을 통해 파악하는 순수한 논리적 지성이다.

각 형태의 특징을 설명해주는 문장입니다. 일단 ‘직관’과 ‘표상’이 대립된다는 건 꼭 잡아주셔야 해요. ‘직관’은 ‘물질적 대상’을 감각적으로, ‘표상’은 물질과는 무관하게 ‘내면’에 ‘심상’을 떠올리는 것이니까요. ‘물질과의 관련성’을 기준으로 두 개념이 나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유’도 앞의 비교지점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표상’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의 자체가 ‘개념’을 통해 대상을 파악하는 ‘순수한 논리적’ 지성이니까요.

직접적으로 언급해주진 않았지만 정의를 바탕으로 비교지점을 같이 생각해줄 수 있으면 더욱 좋겠죠? 정의를 바탕으로 비교지점을 잡는 건 앞에서부터 강조한 기본적인 태도이니까요!

해설 Comment

표상과 사유의 차이점에 대해 첨언할게요. ‘표상’은 개인의 ‘내면’에서 형상화되는 지성이고 ‘사유’는 ‘개념’을 통해 대상을 파악하는 ‘논리적’ 지성입니다. 즉, 표상은 주관성이 짙은 반면 사유는 객관성이 있고, 논리성이 강한 개념입니다. 혹은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겠습니다. ‘표상’은 ‘개인의 내면’에서 형상화되는 심상과 관련되는 반면 ‘사유’는 ‘개념’을 통해 대상을 파악하는 지성입니다. 즉, ‘개인적’ 차원의 지성이냐, ‘개념적으로 일반화된’ 차원의 지성이냐에서 차이가 존재합니다.

이에 세 형태는 각각 ‘직관하는 절대정신’, ‘표상하는 절대정신’, ‘사유하는 절대정신’으로 규정된다.

앞에서 이해한 내용을 재진술하는 문장입니다. 직관·표상·사유 모두 이념을 인식하는 ‘절대정신’이라는 점 기억하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헤겔에 따르면 직관의 외면성과 표상의 내면성은 사유에서 종합되고, 이에 맞춰 예술의 객관성과 종교의 주관성은 철학에서 종합된다.

아주 중요한 문장이예요. 키워딩 재진술이 있기 때문에 같은 말이라는 걸 파악할지 못하면 굉장히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면서, 동시에 앞에서 이해한 내용을 변증법과 연결해서 설명해주는 문장이기도 합니다. 하나씩 볼게요.

‘직관의 외면성’은 ‘물질적 대상’을 감각적 지각으로 인식한다는 직관의 특성을 재진술하는 표현입니다. 외부에 존재하는 ‘물질적 대상’은 ‘외면’적으로 드러나는 대상을 지각하는 것이니까요! 물질적이라는 건 결국 우리가 감각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보고, 듣고, 만지는 등의 감각적 방식으로 느낄 수 있는 대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외부에 존재하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외면성’이라는 키워드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반면 ‘표상의 내면성’은 ‘직관의 외면성’과 정반대되는 표현입니다. ‘표상’은 내면에 심상을 떠올리는 지성입니다.

즉, 겉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우리 내면에 존재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면성’이라는 표현이 등장했어요.

즉, ‘직관’과 ‘표상’은 서로 대립되는 범주입니다. 이렇게 보면 사실 우리가 앞에서 잡은 직관과 표상의 비교지점 이랑 별 다를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같은 말을 반복하는 문장이라는 점을 파악하셔야 해요. ‘외면’과 ‘내면’이 대립되는 의미를 지니고 있긴 하지만, 정확히 어떻게 다른지 그 차이를 이해하는 게 더욱 중요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대립되는 두 범주는 ‘사유’에서 ‘종합’된다고 합니다. 변증법 바로 떠올리셔야 해요! ‘직관-표상’은 ‘정립-반정립’처럼 대립되는 두 범주이고, ‘사유’는 그 둘을 통일하는 ‘종합’에 해당합니다. 이것만 이해하면 뒤에 나오는 구절은 똑같은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죠. ‘예술의 객관성’과 ‘종교의 주관성’은 ‘철학’에서 종합됩니다. 예술은 직관과 같은 군집이고 종교는 심상과 같은 범주잖아요. 그리고 철학은 사유와 같은 군집이니, 똑같은 방식으로 ‘정립-반정립-종합’의 관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 3문단

형식 간의 차이로 인해 내용의 인식 수준에는 중대한 차이가 발생한다. 헤겔에게서 절대정신의 내용인 절대적 진리는 본질적으로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예술은 직관하고 종교는 표상하며 철학은 사유하기에, 이 세 형태 간에는 단계적 등급이 매겨진다. <즉 예술은 초보 단계의, 종교는 성장 단계의, 철학은 완숙 단계의 절대정신이다.> 이에 따라 예술-종교-철학 순의 진행에서 명실상부한 절대정신은 최고의 지성에 의거하는 것, 즉 철학뿐이며, 예술이 절대정신으로 기능할 수 있는 것은 인류의 보편적 지성이 미발달된 머나먼 과거로 한정된다.

앞에서 정리한 예술, 종교, 철학의 차이가 '인식 수준'으로 이어집니다.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세 범주에는 단계적 등급이 있고, 예술-종교-철학 순으로 등급이 높아진다는 점만 파악하시면 됩니다. '종합'에 해당하는 '철학'이 가장 중요하네요.

형식 간의 차이로 인해 내용의 인식 수준에는 중대한 차이가 발생한다.

'형식 간의 차이'는 앞에서 본 예술, 종교, 철학의 차이입니다. 각각 '직관, 표상, 사유'라는 형식을 보여주었죠? 어떤 수준의 차이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그게 핵심이겠습니다. 서술의 초점 잡고 들어갈게요.

헤겔에게서 절대정신의 내용인 절대적 진리는 본질적으로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이다.

여기서 헤겔은 이념을 '논리적', '이성적인' 것으로 본대요. '논리적', '이성적'을 보는 순간 '철학-사유'를 떠올려 주셔야 합니다. 철학의 인식 형태인 '사유'는 개념으로 대상을 인식하는 '논리적' 지성이었으니깐요. 그럼 이념을 인식하는 수준은 당연히 '철학'이 가장 높겠네요. 절대정신은 이념을 내용으로 하는데, 그 이념이 '논리적·이성적'이면 당연히 '논리적'으로 대상을 인식하는 철학(사유)이 가장 잘 인식할 테니까요.

이러한 내용을 예술은 직관하고 종교는 표상하며 철학은 사유하기에, 이 세 형태 간에는 단계적 등급이 매겨진다.

앞에서 생각한 내용과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철학이 '사유'하기 때문에 가장 높은 단계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즉 예술은 초보 단계의, 종교는 성장 단계의, 철학은 완숙 단계의 절대정신이다.>

여기서 단계를 직접적으로 재진술하긴 합니다만, 역시나 철학이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점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또, 예술-종교-철학이 각각 순서대로 제시되는데 이 부분 또한 납득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예술은 '직관'이라는 형식을 통해 대상(이념)을 인식합니다. 즉, 물질적 대상을 인식하는 것이죠.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이념'과는 거리가 멀어요. 즉, 제대로 이념을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초보 단계'이네요.

그리고 종교는 '표상'을 통해 대상을 인식하는데, 애는 그래도 물질과 무관하니 예술 보다는 한 단계 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표상 또한 이성적이고 논리적이진 않기 때문에 완전한 단계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장 단계'라고 하나봅니다. 최종 단계인 '철학'으로 나아가는 과정이니깐요.

이에 따라 예술-종교-철학 순의 진행에서 명실상부한 절대정신은 최고의 지성에 의거하는 것, 즉 철학뿐이며, 예술이 절대정신으로 기능할 수 있는 것은 인류의 보편적 지성이 미발달된 머나먼 과거로 한정된다.

앞에서 말한 단계적 등급을 재진술하는 문장입니다. 철학이 가장 높고, 예술이 가장 낮다! 앞에서 다 이해한 내용이죠?

#(나) 1문단

(나)

변증법의 매력은 ‘종합’에 있다. <종합의 범주는 두 대립적 범주 중 하나의 일방적 승리로 끝나도 안 되고, 두 범주의 고유한 본질적 규정이 소멸되는 중화 상태로 나타나도 안 된다.> 종합은 양자의 본질적 규정이 유기적 조화를 이루어 질적으로 고양된 최상의 범주가 생성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다.

이번에도 ‘변증법’이 포인트입니다. 이 1문단을 읽을 때 (가)의 수렴적 상향성을 떠올리셔야 합니다. ‘유기적 조화’와 같은 말이 결국 ‘조화로운 통일’이니깐요. 그럼 한 문장씩 뜯으러 갑시다!

(나)

변증법의 매력은 ‘종합’에 있다.

네, 역시나 ‘변증법’이라는 동일한 화제를 공유합니다. ‘종합’은 ‘정립-반정립’을 조화하는 게 포인트였죠? 그럼 어떤 점에서 변증법의 매력이 ‘종합’에 있다고 하는지 확인해야겠습니다. (나)에서는 변증법 중 ‘종합’에 초점을 두고 설명할 것 같습니다.

<종합의 범주는 두 대립적 범주 중 하나의 일방적 승리로 끝나도 안 되고, 두 범주의 고유한 본질적 규정이 소멸되는 중화 상태로 나타나도 안 된다.>

이걸 보고 바로 ‘수렴적 상향성’을 떠올렸다면 정말 잘 읽으신 겁니다. 한 쪽의 일방적 승리도, 중화 상태도 종합의 포인트가 아닙니다. 종합은 대립되는 두 범주의 ‘조화로운 통일’을 이루는 개념이에요. 이걸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가)에도 등장했던 포인트죠? 변증법의 속성이기도 했으니 같이 떠올려주세요. 물론 여기서 떠올리지 못했더라도 괜찮습니다. 뒤에서 어차피 재진술해주거든요! 그럼 최소한, ‘그럼 종합의 범주는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데?’와 같은 의문은 갖고 넘어가셔야 해요! 이건 꼭 거쳐야 할 사고과정입니다.

종합은 양자의 본질적 규정이 유기적 조화를 이루어 질적으로 고양된 최상의 범주가 생성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다.

여기서 ‘수렴적 상향성’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유기적 조화를 이룬다는 의미가 곧 조화로운 통일과 같으니깐요. 또, 질적으로 고양된 ‘최상의 범주’에서 (가)의 철학을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가)에서 헤겔은 예술, 종교, 철학에 ‘단계적 등급’이 있다고 보았고, 그중에서도 ‘철학’이 가장 높은 단계라고 보았으니깐요. 또, 철학을 통해 예술과 종교가 종합되기도 하니, ‘종합’ 자체로부터 철학을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이 문장을 읽으면서 (가)의 수렴적 상향성, 철학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주제 통합형 지문은 항상 두 지문을 엮어 가며 읽어야 합니다!

#(나) 2문단

헤겔이 강조한 변증법의 탁월성도 바로 이것이다. 그러기에 <변증법의 원칙에 최적화된 엄밀하고도 정합적인 학문 체계>를 조탁하는 것이 바로 그의 철학적 기획이 아니었던가. 그런데 그가 내놓은 성과물들은 과연 그 기획을 어떤 흠결도 없이 완수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을까? 미학에 관한 한 '그렇다'는 답변은 쉽지 않을 것이다. 지성의 형식을 직관-표상-사유 순으로 구성하고 이에 맞춰 절대정신을 예술-종교-철학 순으로 편성한 전략은 외관상으로는 변증법 모델에 따른 전형적 구성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질적 내용을 보면 <직관으로부터 사유에 이르는 과정에서는 외면성이 점차 지워지고 내면성이 점증적으로 강화·완성되고 있음>, 예술로부터 철학에 이르는 과정에서는 <객관성이 점차 지워지고 주관성이 점증적으로 강화·완성되고 있음>이 확연히 드러날 뿐, 진정한 변증법적 종합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직관의 외면성 및 예술의 객관성의 본질은 무엇보다도 감각적 지각성인데, 이러한 핵심 요소가 그가 말하는 종합의 단계에서는 완전히 소거되고 만다.

(가)에서 제시된 헤겔의 입장을 반박하고 있는 문단입니다. 여기서는 그 비판의 포인트를 이해하는 게 핵심이에요. 비유적이고 수사적인 표현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말하고자 하는 하나의 핵심을 짚어주셔야 합니다. 여기서는 예술에 대한 헤겔의 생각이 변증법의 '종합'에 부적합하다는 점을 꼬집고 있습니다. 변증법에서 '종합'은 '정립-반정립'을 조화롭게 통일해야 하는데, 헤겔의 논증에서는 종합 단계에서 둘 중 하나인 예술의 성격이 소거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변증법적이지 못하다는 뜻이에요. 이 포인트를 잘 이해하는 게 핵심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한 문장씩 읽으면서 할게요.

헤겔이 강조한 변증법의 탁월성도 바로 이것이다.

(가)와 관련된 얘기를 하겠다는 걸 직접적으로 알려주는 문장입니다. (가)의 내용을 떠올리면서 읽으셔야 해요. 일단 여기서 변증법의 탁월성은 유기적 조화, 수렴적 상향성입니다. 네, (가)에서도, (나)에서도 등장한 내용이었죠. 포인트 계속 기억하면서 읽어봅시다.

그러기에 <변증법의 원칙에 최적화된 엄밀하고도 정합적인 학문 체계>를 조탁하는 것이 바로 그의 철학적 기획이 아니었던가.

굉장히 비유적인 문장입니다. '변증법의 원칙에 최적화된 엄밀하고도 정합적인 학문 체계'는 앞에서 언급한 헤겔의 미학, 절대정신과 같은 내용들을 가리킵니다. 실제로 (가)에서도 세 가지 절대정신인 예술, 종교, 철학의 관계를 변증법을 통해 살펴봤었죠. 비유적인 표현이 등장했을 땐 꼭 그 문장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럼 (나)에서는 (가)에 제시된 헤겔의 이론을 변증법과 관련지어서 살펴보겠네요. 계속 (가)와의 연결고리를 잡으면서 읽겠다는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가 내놓은 성과물들은 과연 그 기획을 어떤 흠결도 없이 완수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을까?

물음의 형식입니다! 서술의 초점 잡아야겠죠? 이 문단에서는 앞에서 본 헤겔의 이론을 '변증법'을 중심으로 평가하겠다는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 기획'은 앞에서 봤듯 변증법을 통한 학문 체계를 이루는 것이예요. 그럼 결국 여기서는 헤겔의 이론이 정말 변증법의 원칙에 부합하는지, 부합하지 않는지 그걸 판단하겠습니다. (나)의 화제이자 이 문단의 화제예요. 이 문장을 보고 꼭 이 부분을 잡으셔야 합니다!

미학에 관한 한 ‘그렇다’는 답변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대답을 먼저 주고 들어갑니다. 절대정신, 미학에 관한 헤겔의 이론이 변증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해요! (가)를 읽을 때 구체화된 화제를 여기서도 엮으려나 봅니다. 주제 통합형에서 가장 중요한 동일한 화제를 여기서도 요구하네요. 그럼 엮어서 생각해야겠죠? 일단 (가)에서는 분명 헤겔의 입장을 ‘철학’의 단계에서 예술과 종교가 ‘종합’되는 것으로 이해했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일까요? 그걸 뒤에서 확인하겠다는 생각으로 넘어가셔야 합니다.

추가로 생각할 수 있는 점은 ‘수렴적 상향성’입니다. (나)에서 변증법의 핵심으로 제시한 것이 ‘수렴적 상향성’이에요. 유기적 조화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굳이 이 포인트를 한 번 더 언급한 이유가 있겠죠? 그럼 헤겔의 이론이 변증법에 적합하지 않는다는 말은 ‘수렴적 상향성’에 어긋나기 때문이라고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생각하지 않더라도, 유기적 조화와 관련있지 않을지 간단한 의문 정도만 떠올리셔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나)에 제시된 변증법의 포인트를 중심으로 (가)와 내용을 엮는 태도예요.

지성의 형식을 직관-표상-사유 순으로 구성하고 이에 맞춰 절대정신을 예술-종교-철학 순으로 편성한 전략은 외관상으로는 변증법 모델에 따른 전형적 구성으로 보인다.

(가)에서 제시된 헤겔의 이론을 다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가)를 읽으면서 군집화했던 내용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걸 변증법을 바탕으로 설명하길래, 무리 없이 이해하면서 넘어오기도 했습니다. 예술(직관)-종교(표상)-철학(사유)이 각각 단계적 등급이 있고, 철학(사유)의 단계에서 예술과 종교가 ‘종합’된다고 이해했어요. 변증법을 잘 지킨 것 같은데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넘어갑시다!

그러나 실질적 내용을 보면 <직관으로부터 사유에 이르는 과정에서는 외면성이 점차 지워지고 내면성이 점증적으로 강화·완성되고 있음>, <예술로부터 철학에 이르는 과정에서는 객관성이 점차 지워지고 주관성이 점증적으로 강화·완성되고 있음>이 확연히 드러날 뿐, 진정한 변증법적 종합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헤겔의 이론이 왜 변증법에 어긋나는지 설명해주는 문장인데 아주 어렵습니다. 그냥 (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나)도 날려 먹을 수밖에 없이 구성해두었어요. 하나씩 봅시다. ‘직관으로부터 사유에 이르는 과정’은 ‘정립-반정립-종합’의 과정입니다. 예술(직관, 정립)-종교(표상, 반정립)-철학(사유, 종합)이니까요. 예술과 종교는 철학에서 종합됐어요! 이렇게 ‘종합(철학)’에 이르는 과정에서 ‘외면성’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여기서 ‘외면성’은 직관(예술)의 특징이었죠. ‘직관의 외면성’이니까요. 이 부분을 납득하는 방법도 앞에서 설명했습니다. 객관성과 주관성도 마찬가지로입니다. 두 개념은 각각 예술(직관)과 종교(표상)의 특징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술(직관)의 성격이 약화된다는 말이에요.

아무튼 ‘외면성’과 ‘객관성’이 사라진다는 건, 조화로운 통일, 유기적 조화가 아니라는 말과 같습니다. 즉, ‘수렴적 상향성’과 같은 변증법의 핵심이 ‘종합’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변증법적 종합’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표현한 겁니다. 진정한 종합은 ‘수렴적 상향성’, ‘유기적 조화’, ‘조화로운 통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외면성과 내면성’, ‘객관성과 주관성’이 모두 적절하게 ‘종합’되어야 하죠.

그런데 헤겔의 이론에서는 둘 중 하나가 사라지고 다른 하나만 강화되니 잘못되었다는 말입니다. 이 비판의 포인트를 꼭 이해하셔야 해요. 문제를 풀 때도 마찬가지로!

해설 Comment

왜 외면성과 객관성이 줄고 내면성과 주관성이 강화되는지는, '표상'과 '사유'가 비슷하다는 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가)를 이해할 때 언급했던 내용입니다. '물질과의 관련성'을 기준으로 봤을 때 직관과 표상이 대립된다는 점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이 특징과 '사유'의 정의를 함께 생각하면, '사유'가 '표상'과 가깝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순수한 논리적 지성'을 통해 대상을 인식하는 '사유'는, 물질적 대상과 무관하다고 이해했죠. 이 포인트를 떠올린다면, 여기서 내면성과 주관성이 강화되는 이유를 납득할 수 있습니다.

직관의 외면성 및 예술의 객관성의 본질은 무엇보다도 감각적 지각성인데, 이러한 핵심 요소가 그가 말하는 종합의 단계에서는 완전히 소거되고 만다.

같은 말을 다른 표현으로 한번 더 재진술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똑같아요! 수렴적 상향성이 없다, 조화가 없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도 자세히 봐야겠죠?

'감각적 지각성'은 결국 물질적 대상을 지각하는 특징을 가리킵니다. 즉, 예술(직관)의 특징을 다른 말로 키워딩해서 다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특징이 '종합(철학)'에서 사라진다고 하네요. 네, 유기적 조화가 달성되지 않습니다. 둘 중 하나만 강조되는 상황이니깐요!

#(나) 3문단

변증법에 충실하려면 헤겔은 철학에서 성취된 완전한 주관성이 재객관화되는 단계의 절대정신을 추가했어야 할 것이다. 예술은 '철학 이후'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유력한 후보이다. 실제로 많은 예술 작품은 '사유'를 매개로 해서만 설명되지 않는가. 게다가 이는 누구보다도 풍부한 예술적 체험을 한 헤겔 스스로가 잘 알고 있지 않은가. 이 때문에 방법과 철학 체계 간의 이러한 불일치는 더욱 아쉬움을 준다.

2문단에서 제시된 비판 포인트를 잘 잡았다면 상대적으로 쉽게 뚫어낼 수 있는 문단입니다. 물론 절대 쉽지는 않지만요... 그래도 핵심은 같아요. '종합' 단계에서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걸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게 '주관성이 재객관화되는 단계의 절대정신'입니다. '주관성'이 '재객관화'되는 건, 서로 대립적인 두 범주가 조화롭게 통일되는 것이죠? 이 포인트가 핵심입니다. 그럼 한 문장씩 들어 가봅시다!

변증법에 충실하려면 헤겔은 철학에서 성취된 완전한 주관성이 재객관화되는 단계의 절대정신을 추가했어야 할 것이다.

2문단에서 설명한 비판의 포인트를 재진술하는 문장입니다. 문단 해설에서 언급했던 '주관성이 재객관화'되는 단계가 곧 진짜 '종합'이죠? 주관성과 객관성이라는 대립적인 두 범주의 조화로운 통일을 이루어내는 과정이니깐요! 비판의 포인트를 잡고 바로 이해해야 하는 문장이었습니다.

여기서 '철학에서 성취된 완전한 주관성'이라는 말이 헛갈릴 수 있습니다. (나)에서는 헤겔이 제시한 이론에 따르면, '철학'에서는 예술과 직관의 성질이 소거되고 내면성과 주관성이 강화되고 '완성'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렴적 상향성을 달성하지 못한 종합인 '철학' 다음에, 유기적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종합'의 단계를 추가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한 주관성'은 '철학'에서 성취되는 거예요. 철학에서는 예술 · 직관의 특성이 소거되니까요!

예술은 '철학 이후'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유력한 후보이다.

철학 이후의 자리를 차지한다는 건 예술이 낮은 단계의 절대정신에 머물만한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리고 '철학 이후'의 자리를 차지한다는 것은 결국 예술이 철학 다음의 최고 단계인 '종합'의 단계를 담당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예술 작품은 '사유'를 매개로 해서만 설명되지 않는다.

네, 예술이 왜 철학 이후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지 설명해주는 문장입니다. 예술이 '사유'를 매개로 설명된다고 해요. 즉, 예술은 주어진 대상을 감각적으로 지각하는 것과 동시에 '순수한 논리적 지성'의 매개도 존재한다는 말 이네요. 주관성이 재객관화된다는 말과 일맥상통합니다. 두 범주가 조화를 이룬다는 맥락에서 이해해주시면 충분해요.

게다가 이는 누구보다도 풍부한 예술적 체험을 한 헤겔 스스로가 잘 알고 있지 않은가.

네, 뭐 크게 생각해야 할 포인트가 있는 문장은 아닙니다. 헤겔 스스로도 예술이 사유로 매개된다는 걸 알고 있을 텐데 왜 예술을 하찮게 취급하냐~ 이런 뉘앙스네요. 조화로운 통일이 중요하대! 그리고 '예술'에서는 주관성의 재객관화처럼 제대로 된 '종합'이 가능하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방법과 철학 체계 간의 이러한 불일치는 더욱 아쉬움을 준다.

네, '방법'은 변증법, '철학 체계'는 헤겔의 이론이죠. 여기서 불일치를 보이고 있어요. 이를 비판하는 게 (나)의 핵심이었죠. 헤겔의 이론에서는 (철학의 단계에서) 유기적 조화가 안 되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종합'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대. 변증법에 어긋나는 것이죠.

#지문 총평

굉장히 어려운 지문입니다. 시험을 위한 지문이 되기보다는, 진짜 훈련용 N제에 가깝습니다. 교과서에서는 이런 인문 제재를 읽을 때, '구체적 현실'과 엮어서 이해하라고 합니다. 그 역할을 해주는 게 '예시'예요. 그런데 여기는 그런 예시가 따로 없죠. 수능만 아니었다면 EXTENSION 버전에 실었을 거예요. 많이 어렵습니다. 지문도 이 모양인데, 문제도 만만찮죠. 지문을 처음 풀 때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더라도 자책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어려운 게 정상이에요. 그렇지만 또 국어를 가르치는 입장에서 마냥 거르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니, 많이 힘들더라도 해설에서 언급한 포인트들을 중심으로 공부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특히 재진술을 어떻게 이해하는지가 핵심이었으니, 그 부분을 신경써보세요.

4.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 : ①

- 내용 전개 방식 문제입니다. (가)와 (나)는 둘다 변증법과 헤겔의 이론에 대해 설명했고, (가)에서 제시된 헤겔의 이론을 (나)에서 비판하는 그런 구조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정도는 머릿속에 넣어두고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그럼 선지 판단해봅시다!

① (가)와 (나)는 모두 특정한 철학적 방법에 기반한 체계를 바탕으로 예술의 상대적 위상을 제시하고 있다.

→ 바로 정답이네요. (가)와 (나)는 모두 '변증법'을 기반으로 해서 예술, 종교, 철학에 대해 논했습니다. (가)에서는 예술이 낮고 철학이 높다는 헤겔의 이론이 제시되었고, (나)에서는 그런 헤겔을 비판하며 예술이 철학 다음에 올 수 있는 절대정신이라고 제시했죠. (가)는 예술을 낮게, (나)는 예술을 높게 평가했어요.

② (가)와 (나)는 모두 특정한 철학적 방법에 대한 상반된 평가를 바탕으로 더 설득력 있는 미학 이론을 모색하고 있다.

→ ‘특정한 철학적 방법’은 변증법인데, 둘 다 변증법 자체에 대한 평가를 하지는 않죠? 더 나은 미학 이론을 찾지도 않고요.

③ (가)와 달리 (나)는 특정한 철학적 방법의 시대적 한계를 지적하고 이에 맞서는 혁신적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 마찬가지로입니다. 둘 다 변증법에 대한 평가를 하지는 않았어요. 또 변증법에 대한 대안을 제안하지도 않습니다.

④ (가)와 달리 (나)는 특정한 철학적 방법에서 파생된 미학 이론을 바탕으로 예술 장르를 범주적으로 유형화하고 있다.

→ ‘변증법’에서 ‘파생’된 미학 이론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또, 예술 장르를 범주화하지도 않죠. (나)는 (가)에 제시된 헤겔의 이론을 비판하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⑤ (나)와 달리 (가)는 특정한 철학적 방법의 통시적인 변화 과정을 적용하여 철학사를 단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 두 지문 모두 ‘철학적 방법’은 변증법만 제시되었는데, 이 변증법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했는지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또, 철학사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가)는 변증법을 바탕으로 한 헤겔의 이론이, (나)는 변증법을 중심으로 헤겔의 이론을 비판하는 게 핵심이었어요!

5. (가)에서 알 수 있는 헤겔의 생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 ③

- (가)에서 헤겔은 변증법을 바탕으로 예술, 종교, 철학의 관계를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 철학의 단계에서 예술과 종교가 ‘종합’된다고 보고, 철학을 높게 평가했죠. 예술은 낮게 평가하고요. 이게 핵심이었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선지 판단하러 가야겠죠? 물론 군집화한 각 정보들과 비교지점들도 물어볼 거예요!

① 예술·종교·철학 간에는 인식 내용의 동일성과 인식 형식의 상이성이 존재한다.

→ 각 범주의 비교지점 자체를 물어보는 선지입니다. 인식 내용은 같고, 형식은 다르다! 비교지점으로 잡았던 내용들이죠? 이 정도는 바로 지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선지 포인트 : 예술·종교·철학의 비교지점

② 세계의 근원적 질서와 시·공간적 현실은 하나의 변증법적 체계를 이룬다.

→ 이념에 대해 물어보는 선지입니다. 세계의 근원적 질서는 ‘이념’의 정의였어요. 이념과 현실은 하나의 변증법적 체계를 이룬다고 했죠. 이유도 설명해줬습니다. 이념의 내적 구조와 존재 방식이 변증법적이기 때문에 이념과 현실 모두 변증법적 체계를 이룬다고 했죠. 이 내용을 변증법과 연결해서 설명했습니다. 여기까지 모르더라도 사실상 이념의 정의만 기억하고 있다면 쉽게 지을 수 있는 선지입니다.

#선지 포인트 : 이념의 정의

③ 절대정신의 세 가지 형태는 지성의 세 가지 형식이 인식하는 대상이다.

→ 아주 중요한 선지입니다. 비교지점을 직접적으로 물어보고 있어요. '절대정신의 세 가지 형태'는 예술·종교·철학이었어요. 애네들이 인식하는 '대상'은 '이념'입니다. 네, 공통점을 드러내는 비교지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지는 '세 가지 형식 = 인식 대상'이라고 하네요. 세 가지 형식이 이념은 아니었죠? 형식은 '직관·표상·사유'였습니다. 차이를 드러내는 비교지점이기도 했죠.

굉장히 교묘하게 꼬아낸 선지라 아마 바로 판단하기 어려우셨을 겁니다. 그렇지만 비교지점을 중심으로 묻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선지예요. 비교지점은 강력한 출제 요소라고 이야기했죠? 꼭 복습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선지 포인트 : 개념 간 비교지점, 세밀한 내용 일치

④ 변증법은 철학적 논증의 방법이자 논증 대상의 존재 방식이다.

→ 변증법의 속성에 대해 묻는 선지입니다. 재진술로 풀어서 이해했던 내용이네요! 이념의 내적 구조와 존재 방식이 모두 변증법적으로 존재한다는 말과 같았습니다. 이걸 세계의 본질을 설명한다는 뜻으로 이해하기도 했죠. 눈알 굴리기로도 풀 수 있지 만요.

#선지 포인트 : 변증법의 속성, 납득해야 할 정보

⑤ 절대정신의 내용은 본질적으로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이다.

→ 네, 예술·종교·철학의 비교지점을 묻는 선지입니다. 절대 정신은 이념 즉, 절대적 진리를 동일한 내용으로 했어요. 공통점만 잘 잡았다면 해결할 수 있는 선지였습니다.

#선지 포인트 : 개념 간 비교지점

6. (가)에 따라 직관·표상·사유의 개념을 적용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 ④

- 직관·표상·사유는 각각 예술·종교·철학에 대응하는 개념들이었죠. 각 개념의 정의와 비교지점을 중심으로 선지 판단해봅시다!

① 먼 타향에서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는 것은 직관을 통해, 같은 곳에서 고향의 하늘을 상기하는 것은 표상을 통해 이루어지겠군.

→ 별을 바라보는 것은 감각적으로 물리적 대상을 지각하는 것이니 '직관'이 맞습니다. 그리고 고향의 하늘을 '상기'하는 것도 내면에서 심상을 떠올리는 것이니 '표상'이 맞네요.

②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로 가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는 것과, 그 후 판타지 영화의 장면을 떠올려 보는 것은 모두 표상을 통해 이루어지겠군.

→ '상상'하는 것, 장면을 '떠올리는 것' 모두 내면에서 심상을 만드는 것이죠. '표상'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③ 초현실적 세계가 묘사된 그림을 보는 것은 직관을 통해, 그 작품을 상상력 개념에 의거한 이론에 따라 분석하는 것은 사유를 통해 이루어지겠군.

→ 그림을 보는 건 물리적 대상을 감각적으로 지각하는 것이니 '직관'을 통해 이루어지는 게 맞고, 상상력 '개념'에 의거한 이론에 따라 분석하는 것도 '개념'을 통해 대상을 인식하는 것이니 사유를 통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④ 예술의 새로운 개념을 설정하는 것은 사유를 통해,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감각을 일깨우는 작품의 창작을 기획하는 것은 직관을 통해 이루어지겠군.

→ ‘개념’을 설정하는 건 사유가 맞죠. 그런데 창작을 ‘기획’하는 건 직관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직관은 물리적 대상을 감각적으로 지각하는 것이니까요. 오히려 개념을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창작을 기획하는 것 또한 ‘사유’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봐야겠네요.

⑤ 도덕적 배려의 대상을 생물학적 상이성 개념에 따라 규정하는 것과, 이에 맞서 감수성 소유 여부를 새로운 기준으로 제시하는 것은 모두 사유를 통해 이루어지겠군.

→ 네, 둘 다 개념을 통해 대상을 규정하고 있으니 ‘사유’를 통해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수성 소유 여부를 기준으로 제시하는 것 또한, 개념을 통해 대상을 인식하는 것이니까요. ‘감수성 소유 여부’가 곧 ‘도덕적 배려의 대상’이라는 개념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에요.

7. (나)의 글쓴이의 관점에서 ㉠과 ㉡에 대한 헤겔의 이론을 분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 ㉢

㉠ 정립-반정립-종합, ㉡ 예술-종교-철학

- 일단 헤겔의 이론에 따르면 ‘정립-반정립-종합’은 각각 ‘예술-종교-철학’에 대응합니다. 그렇지만 (나)에서는 이를 비판했죠. 변증법과 달리 헤겔의 이론에서는 ‘철학’에서 조화로운 ‘종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이 비판 포인트를 기억하고 선지 판단하려 가봅시다.

① ㉠과 ㉡ 모두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의 범주는 서로 대립한다.

→ 네, ‘예술’과 ‘종교’가 서로 대립되는 두 범주의 개념이라는 것은 (나)에서도 인정합니다. (나)에서 비판했던 포인트는 유기적 조화가 이뤄지지 않는 ‘종합’ 단계였어요.

② ㉠과 ㉡ 모두에서 두 번째와 세 번째 범주 간에는 수준상의 차이가 존재한다.

→ 조금 까다로운 선지입니다. 일단 ㉠은 수렴적 ‘상향성’이라는 키워드 자체에 주목해서 수준 차이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혹은 (나)에서도 ‘종합’을 최상의 단계라고 표현했다는 점을 근거로 잡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가)의 헤겔과의 공통점을 잡기도 했죠?

그리고 ㉡은 (나)에서 직관에서 사유로 나아갈 때 내면성이 ‘점층적으로 강화·완성’된다고 했다는 점을 근거로 판단하셔도 좋습니다. 종교에서 철학으로 나아갈 때 내면성이 강화됩니다. 즉, 종교(표상)에 비해 철학(사유)가 더 내면성이 강하기 때문에 수준상 차이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어요.

③ ㉠과 달리 ㉡에서는 범주 간 이행에서 첫 번째 범주의 특성이 갈수록 강해진다.

→ (나)의 글쓴이는 범주 간 이행에서 첫 번째 범주의 특징이 강해진다고 보지 않았습시다. 오히려 첫 번째 범주(직관)의 특성이 소거된다는 점을 근거로 헤겔을 비판했어요.

④ ㉡과 달리 ㉠에서는 세 번째 범주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 범주의 조화로운 통일이 이루어진다.

→ 네, 헤겔의 이론에 따르면 ㉡에서는 유기적 조화가 이루어진 ‘종합’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았죠. 변증법에서는 당연히 정상적으로 일어나고요. 그래서 변증법적으로 설명을 못했다는 게 비판 포인트였습시다.

⑤ ㉑과 달리 ㉒에서는 범주 간 이행에서 수렴적
상향성이 드러난다.

→ 네, 이게 비판의 포인트죠? 발문 아래 해설에서도 언급했던 내용입니다. 이 선지는 쉽게 지울 수 있어야 해요.

8. <보기>는 헤겔과 (나)의 글쓰기가 나누는 가상의 대화의 일부이다. ㉓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정답 : ②

- 발문을 보고서는 바로 앞 문제와 같은 생각을 해주셔야 합니다. 변증법의 핵심, (나)에서 헤겔의 이론을 비판했던 포인트를 떠올리면서 <보기>로 들어가 봅시다.

— <보 기> —

헤겔 : 괴테와 실러의 문학 작품을 읽을 때 놓치지 않아야 할 점이 있네. 이 두 천재도 인생의 완숙기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최고의 지성적 통찰을 진정한 예술미로 승화시킬 수 있었네. 그에 비해 초기의 작품들은 미적으로 세련되지 못해 결코 수준급이라 할 수 없었는데, 이는 그들이 아직 지적으로 미성숙했기 때문이었네.

(나)의 글쓴이 : 방금 그 말씀과 선생님의 기본 논증 방법을 연결하면 ㉓는 말이 됩니다.

- <보기>에서 생각해야 할 지점을 찾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원래 헤겔은 예술을 낮은 단계의 절대정신이고, 철학이 최고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술이 절대정신으로 기능하는 것은 보편적 지성이 미발달된 과거에 불과하다고 했죠. 그런데 여기서는 '최고의 지성적 통찰'을 '예술미'로 승화시킨다고 합니다. 즉, '사유'를 통한 예술이 가능하다고 본 것이죠.

그리고 이걸 (나)에서 등장한 대안이기도 합니다. 이게 곧 '주관성이 재객관화되는 단계'이고, '철학 이후의 단계'에 예술이 오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나)의 글쓴이는 이 말을 하겠네요. '사유를 통해서도 예술을 설명할 수 있다, 예술이 철학 이후의 단계(종합)에 올 수 있다'는 내용일 거예요.

① 이론에서는 대립적 범주들의 종합을 이루어야 하는 세 번째 단계가 현실에서는 그 범주들을 중화한다

→ 예술미가 '최고의 지성적 통찰'을 통해 승화되는 건 범주를 '중화'하는 게 아니죠? 오히려 제대로 '종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② 이론에서는 외면성에 대응하는 예술이 현실에서는 내면성을 바탕으로 하는 절대정신일 수 있다

→ 헤겔의 이론에 따르면 '예술'은 '직관'의 형식으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직관은 외면성을 특징으로 가졌죠. '직관의 예술성'과 같은 키워딩에서도 이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어떤가요? '최고의 지성적 통찰' 즉, '사유'를 매개로 예술미가 승화될 수 있다고 해요. 여기서 '사유'는 '직관'과 '표상'을 '종합'하는 개념임으로 '내면성'을 바탕으로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혹은 (나)에서 비판받는 헤겔의 이론 자체를 생각해 봐도 됩니다. (나)에 제시된 헤겔의 이론에 따르면, '사유'는 내면성이 강화·완성되는 단계이니, '내면성'을 바탕으로 하는 절대정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③ 이론에서는 반정립 단계에 위치하는 예술이 현실에서는 정립 단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 일단 지문을 읽으면서 '예술'은 '정립' 단계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예술-종교-철학' 순서대로 단계적 등급이 매겨진다는 점도 같이 생각했구요. 물론 종교를 반정립, 예술을 정립으로 보더라도 틀린 선지가 됩니다. 헤겔의 말은 예술이 철학 이후의 단계로 설정되기 때문이에요. 적어도 정립 단계는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우리는 지문 해설에서 이 부분을 수렴적 상향성이 만족되는 진짜 '종합' 단계라고 이해하기도 했죠.

- ④ 이론에서는 객관성을 본질로 하는 예술이 현실에서는 객관성이 사라진 주관성을 지닌다

→ <보기>에서는 예술이 사유를 통해 매개되는 상황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이걸 예술이 철학 이후의 단계에 와서 수렴적 상향성이 달성된 '종합'을 이루는 상황이었죠. '주관성의 재객관화'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했어요. 그런데 예술이 '객관성이 사라진 주관성'을 갖는다는 건, 온전한 종합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한쪽이 소거되는 건 조화로운 통일이 아니니까요.

- ⑤ 이론에서는 절대정신으로 규정되는 예술이 현실에서는 진리의 인식을 수행할 수 없다

→ <보기>의 상황과 완전 비판인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술이 현실에서는 진리 인식을 수행할 수 없다니... 말도 안 됩니다. <보기>에서는 예술이 '사유'를 통해 매개될 수 있다고 보는 걸요. 진리 인식을 수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9. 문맥상 ㉠~㉥와 바꾸어 쓰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 : ㉢

- ① ㉠ : 소지(所持)하여야
- ② ㉡ : 포착(捕捉)한다
- ③ ㉢ : 귀결(歸結)되어도
- ④ ㉣ : 간주(看做)하면
- ⑤ ㉤ : 결성(結成)되지

[10~13]

문장 단위 해설 - #1문단

기축 통화는 국제 거래에 결제 수단으로 통용되고 환율 결정에 기준이 되는 통화이다. 1960년 트리핀 교수는 브레턴우즈 체제에서의 기축 통화인 달러화의 구조적 모순을 지적했다. 한 국가의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입 간 차이인 경상 수지는 수입이 수출을 초과하면 적자이고, 수출이 수입을 초과하면 흑자이다. 그는 <“미국이 경상 수지 적자를 허용하지 않아 국제 유동성 공급이 중단되면 세계 경제는 크게 위축될 것”이라면서도 “반면 적자 상태가 지속돼 달러화가 과잉 공급되면 준비 자산으로서의 신뢰도가 저하되고 고정 환율 제도도 붕괴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축 통화인 달러화와 경상 수지 간의 관계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국제 유동성'이라는 키워드를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고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있는데, 이걸 달러화와 비슷한 개념으로 생각하고 이해해야 그나마 지문이 읽힙니다. 그리고 트리핀 교수가 달러화와 경상 수지 간의 관계에 대해 문제 상황을 지적하고 있어요. 애가 왜 문제인지, 그리고 이 문제와 관련된 내용이 뒤에서 나오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넘어가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설명은 한 문장씩 읽으면서 할게요.

기축 통화는 국제 거래에 결제 수단으로 통용되고 환율 결정에 기준이 되는 통화이다.

기축 통화의 정의를 설명하는 문장입니다. 기/축//통화는 말 그대로 환율이 '기준'이 되는 '통화'라고 합니다. 또, 국제 거래에 결제 수단으로 통용된다는 것 또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어요. 국제 거래는 여러 나라 사이에서 행해지는 거래입니다. 즉, 사용하는 화폐가 다른 나라끼리 거래를 할 때 필요한 결제 수단이 되는 게 '기축 통화'입니다. 역시나 다양한 국가 사이의 '기준'이 되는 통화이네요. 기축 통화와 관련된 내용이 등장하겠다는 생각과 함께 넘어갑시다.

1960년 트리핀 교수는 브레턴우즈 체제에서의 기축 통화인 달러화의 구조적 모순을 지적했다.

일종의 예시이자 화제가 구체화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달러화의 구조적 모순’이 문제 상황으로 등장하는데, 여기서 ‘달러화’가 기축 통화로 작용한대요. 실제로 지금도 달러가 항상 메인으로 작용하고 있죠? 아무튼 ‘기축 통화’와 관련된 문제 상황이 제시되고 있다는 생각을 꼭 해주셔야 합니다.

그럼 트리핀 교수가 지적한 이 ‘달러화의 구조적 모순’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겠네요. 달러가 기축 통화로 사용될 때 어떤 문제(모순)가 발생하는지가 중요하겠습니다. 이 상황 자체가 화제가 된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기축 통화’의 예시인 ‘달러화’와 관련된 상황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한 국가의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입 간 차이인 경상 수지는 수입이 수출을 초과하면 적자이고, 수출이 수입을 초과하면 흑자이다.

갑자기 ‘경상 수지’라는 키워드에 대해 설명합니다. 흐름이 아주 불친절하지만, 화제와 관련된 개념이라는 생각과 함께 읽으셔야 합니다. 일단 정의는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입 간 차이’가 경상 수지라고 하네요. 그래서 적자와 흑자가 아래와 같이 나뉩니다.

적자 : ‘수입 > 수출’
흑자 : ‘수출 > 수입’

여기서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수입과 수출이 ‘재화와 서비스’라는 점입니다. 자칫 잘못 읽으면 “수입이 많은데 왜 적자지?”라는 생각과 함께 헷갈릴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수입’이 많다는 건, ‘재화나 서비스’를 사는 양이 많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물건을 많이 사는 상황이니 ‘돈의 지출’이 많아지죠. 그렇기 때문에 ‘재화나 서비스’의 ‘수입’이 많아지면 나가는 ‘돈’이 늘어나니 ‘적자’가 발생합니다. 흑자도 마찬가지로요. 재화나 서비스를 많이 팔아서 수출이 많아지면, 들어오는 돈이 늘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수출 > 수입’일 때 ‘흑자’가 되는 거예요.

정의를 토대로 문장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 문장에서는 ‘경상 수지’의 흑자와 적자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니 같은 맥락에서 등장하는 수입과 수출 또한 ‘재화나 서비스’의 수출입이라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문장 자체가, 어휘가 가리키는 말을 생략해두었기 때문에 신경쓰면서 읽으셔야 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 경상 수지의 적자와 흑자(수출입)가 어떻게 ‘달러화(기축 통화)의 구조적 모순’과 연결되는지 생각하면서 읽어야겠어요.

① 그는 <“미국이 경상 수지 적자를 허용하지 않아 국제 유동성 공급이 중단되면 세계 경제는 크게 위축될 것”이라면서도 ② “반면 적자 상태가 지속돼 달러화가 과잉 공급되면 준비 자산으로서의 신뢰도가 저하되고 고정 환율 제도도 붕괴될 것”이라고 말했다.>

화제와 관련된 트리핀 교수의 말이 이어집니다. 결국 ‘달러화의 구조적 모순’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걸 ‘경상 수지’와 연결해서 설명하고 있네요. 이것도 설명할 게 굉장히 많으니 문장을 끊어서 볼게요.

① 그는 <“미국이 경상 수지 적자를 허용하지 않아 국제 유동성 공급이 중단되면 세계 경제는 크게 위축될 것”이라면서도

일단 경상 수지 적자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수입 > 수출’의 상황을 꺼린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국제 유동성 공급이 중단’되고 세계 경제가 크게 위축된다고 합니다. 문제 상황이죠. 그런데 이게 문제라는 건 알겠는데 무슨 뜻인지 알기가 어려워요. ‘국제 유동성’이 뭔지 설명해주지도 않고 글이 전개되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앞에서 본 정보를 토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국제 유동성이 공급되지 않는 상황은 미국이 ‘수입 > 수출’을 꺼리는 것과 같다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다른 나라로부터 재화나 서비스를 사지 않거나, 반대로 미국이 자기 나라의 재화나 서비스를 많이 팔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미국이 다른 나라로부터 재화나 서비스를 사지 않으려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다른 나라에게 ‘달

러화'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을 거예요. 국제 거래에는 기축 통화인 '달러화'가 사용되고 그 달러는 미국에서 찍어내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달러를 찍어내는 미국이 다른 나라로부터 물건을 안 산다면? 물건을 살 때 지불하게 되는 기축 통화인 '달러화'가 다른 나라에 제대로 공급되지 않을 겁니다. 그럼 국제 유동성은 맥락상 기축 통화, 달러화와 비슷한 말이라고 유추할 수 있어요.

설명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② “반면 적자 상태가 지속돼 달러화가 과잉 공급되면 준비 자산으로서의 신뢰도가 저하되고 고정 환율 제도도 붕괴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도 이번 구절은 그나마 할 만하네요. ①번과 완전히 반대되는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적자가 지속되는 상황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적자 상태는 앞에서 봤듯 '수입 > 수출'이었죠. 그런데 이 상태가 지속되면 미국이 다른 나라로부터 재화를 들여오는 게 많아질 거예요. 그렇게 되면 미국이 다른 나라에게 공급하는 '달러화'가 계속 많아지겠죠. 그럼 당연히 달러가 각국에 많이 퍼지게 되니, 신뢰도는 저하될 겁니다. 흔해지니까요! 그렇게 고정 환율 제도가 붕괴될 거라고 하네요. 여기서 '고정 환율 제도' 또한 어떤 설명 없이 바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확인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넘어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역시나 한 번 이해해보고 넘어갑시다. '고정 환율 제도'는 말 그대로 환율을 고정하는 제도일 거예요. 그런데 환율과 관련된 개념이 있었죠? 네, 기축 통화입니다. 기축 통화의 정의가 '환율을 결정하는 데 기준이 되는 통화'였잖아요. 그럼 고정 환율 제도가 붕괴되는 건, 기축 통화인 달러화에 문제가 생겨서 발생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달러화의 구조적 모순'과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해설 Comment

사실 이 문장을 끊지 않고 읽어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①번과 ②번 상황이 서로 반대된다는 점을 캐치하면 국제 유동성이 달러화와 비슷한 개념이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어요. 적자를 허용하지 않는 ①번에서는, 국제 유동성 '공급이 중단'됩니다. 반면 적자가 지속되는 ②번에서는 달러화가 '과잉 공급'되죠. 즉, 적자이나 아니냐를 중심으로 달러화와 국제 유동성이 공급되냐, 아니냐가 나뉘기 때문에, 달러화와 국제 유동성이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마 지문을 이해하신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또한 굉장히 좋은 사고과정입니다! 실제로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다만, 설명하는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주고 싶어서 끊어두었습니다.

혹은 '국제 유동성'이라는 키워드에 주목해서 단어 뜯기로 납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국제//유동/성은 국제적으로 '유동적인 성질'을 가진 개념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기축 통화와 비슷한 개념임을 떠올릴 수 있죠. 기축 통화가 국제 거래에 통용되는 결제 수단이니까요! 그럼 국제 유동성이 기축 통화, 달러화와 비슷한 개념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2문단

이러한 트리핀 딜레마는 국제 유동성 확보와 달러화의 신뢰도 간의 문제이다. 국제 유동성이란 국제적으로 보편적인 통용력을 갖는 지불 수단을 말하는데, 금 본위 체제에서는 금이 국제 유동성의 역할을 했으며, 각 국가의 통화 가치는 정해진 양의 금의 가치에 고정되었다. 이에 따라 국가 간 통화의 교환 비율인 환율은 자동적으로 결정되었다. 이후 브레턴우즈 체제에서는 국제 유동성으로 달러화가 추가되어 ‘금환본위제’가 되었다. 1944년에 설립된 이 체제는 미국의 중앙은행에 ‘금 태환 조항’에 따라 금 1온스와 35달러를 언제나 맞교환해 주어야 한다는 의무를 지게 했다. 다른 국가들은 달러화에 대한 자국 통화의 가치를 고정했고, 달러화로만 금을 매입할 수 있었다. <환율은 경상 수지의 구조적 불균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pm 1\%$ 내에서의 변동만을 허용했다. 이에 따라 기축 통화인 달러화를 제외한 다른 통화들 간 환율인 교차 환율은 자동적으로 결정되었다.>

역시나 쉽지 않은 문단입니다. 트리핀 딜레마가 무엇인지 파악하기도 힘들고, 앞에서 설명되지 않은 국제 유동성의 정의가 갑자기 튀어나오기도 하고, 다양한 체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화제를 중심으로 앞에서 나온 정보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해가 돼요. 트리핀 딜레마가 앞에서 말한 달러화의 구조적 모순과 같은 말이라는 점을 파악하고 금환본위제, 브레턴우즈 체제에 초점을 맞추면서 읽어야 합니다. 그럼 자세한 건 한 문장씩 보면서 생각합시다!

이러한 트리핀 딜레마는 국제 유동성 확보와 달러화의 신뢰도 간의 문제이다.

여기서 트리핀 딜레마가 무엇인지 스스로 떠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숨겨진 정의의 끝판왕이 아닐까 싶어요. 앞에서 경상 수지와 연결해서 생각한 달러화의 문제가 곧 트리핀 딜레마입니다. ‘딜레마’라는 키워드에 초점을 두고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앞에서 트리핀 교수가 지적한 상황을 보면 미국의 경상 수지 적자가 유지돼도 문제였고, 적자 상태를 거부해도 문제였죠. 그러니까 달러화나 국제 유동성을 늘리지도, 줄이지도 못하는 ‘딜레마’ 상황이기 때문에, ‘트리핀 딜레마’는 사실상 앞에서 제시된 문제 상황을 뜻한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국제 유동성 확보와 달러화의 신뢰도 간 문제도 결국, 달러화의 구조적 모순과 같은 말임을 파악할 수 있었죠. 1문단 마지막 문장을 통해 확인했을 때, 국제 유동성과 달러화의 공급에 따라 (달러화의) 신뢰도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 공급 문제는 다시 경상 수지와 연결됐죠. 이 문제는 앞에서부터 읽으면서 ‘달러화의 구조적 모순’이라고 생각했어요. 화제로 잡고 관련된 상황임을 인지하면서 지문을 읽어왔습니다.

그럼 ‘국제 유동성 확보와 달러화의 신뢰도 간 문제’는 앞에서 제시된 ‘달러화의 구조적 모순’의 상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주는 재진술 문장이자, 화제를 직접적으로 언급해주는 문장이 됩니다. 1문단을 이해하고 그 내용을 잘 떠올리면서 2문단으로 내려왔다면 친절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아주 뚱뚱지 같은 소리를 하는 것처럼 느껴지죠. 굉장히 어려운 지문이고, 이해하는 과정 또한 쉽지 않습니다. 조금 힘들더라도 사고를 교정하는 과정이라는 생각을 갖고 최대한 이해해봅시다!

국제 유동성이란 국제적으로 보편적인 통용력을 갖는 지불 수단을 말하는데, 금 본위 체제에서는 금이 국제 유동성의 역할을 했으며, 각 국가의 통화 가치는 정해진 양의 금의 가치에 고정되었다.

국제 유동성의 정의를 여기서 줍니다. 이 문장을 읽으면서 반드시 '기축 통화'를 떠올리셔야 해요. 국제적으로 보편적인 통용력을 갖는다는 말이 곧 국제 거래에 통용된다는 말이니깐요! 그럼 앞서서부터 짐작했던 생각을 여기서 확정해주시면 됩니다. 국제 유동성 = 기축 통화였네요! 그리고 금 본위 체제에 대한 설명이 이어집니다. 이때는 금이 국제 유동성의 역할을 했다고 하네요. 즉, 금이 기축 통화로서의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그럼 각 국의 통화 가치는 금을 기준으로 결정되겠죠. 금 본위 체제에서는 금이 기축 통화이고, 기축 통화는 환율을 결정하는 기준이었으니까요. 환율과 통화 가치의 관계는 앞에서 자세히 설명했던 적이 있죠? 환율이 통화 간 교환 비율이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환율과 통화 가치에 대한 내용이 기억나지 않는다면 아래의 해설 Comment를 참고해주세요.

해설 Comment

환율이 1달러와 1000원, 1달러와 2000원인 케이스 A, B를 가정해봅시다. 이때 원화의 가치는 똑같이 1달러를 중심으로 결정됩니다. 그런데 원화의 가치는 'A > B'이죠. A의 경우에는 1달러를 사기 위해 1000원만 지불하면 되지만 B의 경우에는 2000원이나 지불해야 해요! 그럼 원화의 가치는 A의 경우가 B의 경우보다 두 배 높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원화를 기준으로 본 달러의 가치는 반대로 되겠죠. 1000원만 주면 1달러를 얻을 수 있을 때와, 2000원을 줘야 1달러를 살 수 있을 때를 생각해봅시다. 그럼 당연히 2000원의 가치를 갖는 경우인 B에서, 달러의 가치가 높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환율과 통화 가치가 결정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후 브레턴우즈 체제에서는 국제 유동성으로 달러화가 추가되어 '금환본위제'가 되었다.

여기서부터 다시 정신을 차리셔야 합니다. 우리가 1문단에서부터 보던 상황은 달러화가 기축 통화로 기능하던 '브레턴우즈 체제'입니다. 그럼 달러화가 국제 유동성으로 추가되었으니 곧 앞서서부터 보던 트리핀 딜레마와 관련된 내용이 등장하겠네요. 이 생각과 함께 넘어갑시다.

참, 국제 유동성으로 달러화가 추가된 것이 '금환본위제'입니다. '금 본위 체제'와의 비교지점도 잡아주고 넘어갑시다. '국제 유동성'이 금만 있냐, 달러화도 있냐가 핵심적인 차이입니다.

1944년에 성립된 이 체제는 미국의 중앙은행에 ‘금 태환 조항’에 따라 금 1온스와 35달러를 언제나 맞교환해 주어야 한다는 의무를 지게 했다.

‘금 태환 조항’에 대한 설명이 등장하는데, 이 내용을 브레턴우즈 체제의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금환본위제가 성립되면서 국제 유동성이 금, 달러화가 된 상황입니다. 그럼 금과 달러 사이의 교환 비율도 당연히 존재하겠죠. 금과 달러화가 똑같이 보편적인 통용력을 지니니까 둘 사이의 관계도 고정되어 있을 겁니다. 내용 자체는 쉬우니, 금환본위제와 연결지어서 생각했다면 충분합니다.

다른 국가들은 달러화에 대한 자국 통화의 가치를 고정했고, 달러화로만 금을 매입할 수 있었다.

여기서 구체적으로 이해해주시면 됩니다. 국제 유동성으로 금과 달러가 있는데, 다른 국가들은 달러화를 기준으로 통화 가치를 정한다고 해요. 그리고 그렇게 환율을 고정시켜 두면 자국 통화를 다시 달러로 바꾼 후, 그 바꾼 달러를 통해 금을 매입하는 그런 형식이네요.

쉽게 보면 이런 겁니다. 1달러 = 1000원이라고 가정할 때, 35000원을 35달러로 바꾸고, 원화와 맞바꾼 35달러로 다시 금 1온스를 매입하는 그런 형태인 것이죠. 여러 국가의 통화를 교환할 때, 달러와 금이 중심이 되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금환본위제가 무엇인지만 파악하면 충분합니다.

〈환율은 경상 수지의 구조적 불균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1% 내에서의 변동만을 허용했다.〉

이 문장 또한 읽고 해야 할 생각이 중요합니다. 금환본위제에서 환율은 1% 내외에서만 변동했다고 합니다. 즉, 환율이 거의 변하지 않았다는 뜻이죠. 다시 말하면 달러와 금을 중심으로 다른 국가들의 통화 교환 비율(환율)이 고정되었다는 뜻입니다.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나요? 네, 달러화를 기축 통화로 한 고정 환율 제도가 성립되었다는 말이에요. 앞에서 트리핀 딜레마와 연결되는 내용인가 봅니다.

이에 따라 기축 통화인 달러화를 제외한 다른 통화들 간 환율인 교차 환율은 자동적으로 결정되었다.〉

그 말을 풀어서 재진술해주는 게 이 문장이네요. 기축 통화인 달러화를 제외한 다른 통화들끼리 ‘교차적으로’ 형성되는 교환 비율(환율)이 교차//환율이라고 하네요. 정의 자체는 단어 뜯기로 납득해주시면 충분합니다. 결국 여기서도 하고자 하는 말은 같아요. 달러화를 중심으로 각 국가 간 환율이 고정적으로 결정되었다! ‘고정 환율 제도’를 직접적으로 떠올리기 어렵다면 이 정도까지만 생각하셔도 충분합니다.

#3문단

〈1970년대 초에 미국은 경상 수지 적자가 누적되기 시작하고 달러화가 과잉 공급되어 미국의 금 준비량이 급감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달러화의 금 태환 의무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도달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달러화의 가치를 내리는 평가 절하, 또는 달러화에 대한 여타국 통화의 환율을 하락시켜 그 가치를 올리는 평가 절상이었다. 〈하지만 브레턴우즈 체제 하에서 달러화의 평가 절하는 규정상 불가능했고, 당시 대규모 대미 무역 흑자 상태였던 독일, 일본 등 주요국들은 평가 절상에 나서려고 하지 않았다. 이 상황이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으로 독일의 마르크화와 일본의 엔화에 대한 투기적 수요가 증가했고, 결국 환율의 변동 압력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국은 보유한 달러화를 대규모로 금으로 바꾸기를 원했다.〉 미국은 결국 1971년 달러화의 금 태환 정지를 선언한 닉슨 쇼크를 단행했고, 브레턴우즈 체제는 붕괴되었다.

1, 2문단을 잘 읽었다면 상대적으로 편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아예 통으로 날려버리게 되는 문단입니다. 트리핀 딜레마와, 그로 인한 브레턴우즈 체제의 붕괴 상황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만 잘 캐치했다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그걸 캐치하는 게 어렵죠... 그리고 평가 절하, 평가 절상의 대상이 각각 달러화와 여타국 통화라는 점도 잘 파악해야 합니다. 여기서도 문장의 구성 성분이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엉뚱하게 이해하게 됩니다. 이것도 주의하시면서 읽어야 합니다. 문장 해설에서 다시 언급할게요.

〈1970년대 초에 미국은 경상 수지 적자가 누적되기 시작하고 달러화가 과잉 공급되어 미국의 금 준비량이 급감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달러화의 금 태환 의무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도달했다.〉

두 문장을 한 번에 볼게요. 1문단에서 본 브레턴우즈 체제에서의 '달러화의 구조적 모순'에 대한 내용입니다. 경상 수지 적자와 달러화 공급을 연결해서 보고 있어요. 이 상황이 지속되면 달러화의 신뢰도 하락까지 이어진다고 했죠? 앞에서 이해하기도 했습니다. 여기까지 떠올렸다면 뒷 내용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브레턴우즈 체제에서는 미국에게 금 태환 의무가 있어요. 여기서 다른 나라들이 달러화를 많이 갖게 된다면 당연히 그 달러를 금으로 바꾸고자 하는 수요도 늘어날 겁니다. 그럼 미국은 당연히 금 태환 의무에 따라 그 달러들을 금으로 바꾸어 줘야 하니, 금 준비량이 급감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럼 또 바꿔줘야 할 금이 금방 바닥날 테니, 제대로 의무를 이행할 수 없을 겁니다. 파국이네요. 문제 상황이라는 점을 꼭 떠올려 주셔야 합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달러화의 가치를 내리는 평가 절하, 또는 달러화에 대한 여타국 통화의 환율을 하락시켜 그 가치를 올리는 평가 절상이었다.

앞에서 제시된 문제의 대안입니다. 문단 해설에서도 언급했지만 여기서 말하는 건 '달러화의 평가 절하'와 '여타국 통화의 평가 절상'입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 읽으면 '여타국 통화의 환율을 하락시켜 달러화의 가치를 올리는 평가 절상'으로 이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해요. 환율과 통화 가치에 대한 관계를 알고 있었다면 그 말이 이상하단 걸 바로 캐치할 수 있지만, 그걸 모르는 상태라면 충분히 오해하기 쉬워요. 문장 자체가 불친절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올게요. 어쨌든 대안의 포인트는 하나입니다. 환율 자체를 변동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달러화의 가치 절하든 여타국 통화의 가치 절상이든, 통화 가치를 변동한다는 말이니깐요.

해설 Comment

그럼 왜 환율을 변동하는 게 대안이 되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제시된 상황은 달러화의 과잉 공급에서 기인했어요. 여기서 달러화의 가치를 낮추거나 여타국 통화의 가치를 높이면, 결과적으로 다른 통화에 대한 달러화의 비율이 높아집니다. 그럼 다른 국가에서 미국의 물건을 구입하기가 쉬워지겠죠? 그럼 미국의 수출이 늘어나면서 다시 국가에 과잉 공급된 달러화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올 거예요. 즉, 경상 수지를 흑자로 돌리고자 하는 상황인 겁니다.

〈하지만 브레턴우즈 체제하에서 달러화의 평가 절하는 규정상 불가능했고, 당시 대규모 대미 무역 흑자 상태였던 독일, 일본 등 주요국들은 평가 절상에 나서려고 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 대안마저 실현할 수 없습니다. 달러화의 평가 절하도, 여타국 통화의 평가 절하도 불가능하네요. 총체적 난국입니다.

해설 Comment

여기서 조금 더 생각할 부분은 '왜 주요국들이 평가 절상에 나서려고 하지 않았는가'입니다. 앞에서 달러화 평가 절하를 이해했던 포인트와 같아요. 원화와 엔화를 예시로 설명할게요. 엔화의 가치가 올라가면, 1엔을 사기 위한 원화의 비율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환율이 '1엔 : 10원'이었다가 '1엔 : 100원'으로 올라가면, 엔화의 가치가 증가함과 동시에 엔화를 사기 위한 원화의 비율이 높아지는 것이죠. 그럼 일본의 물건을 사기 힘들어 집니다. 즉, 일본의 수출 비중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그럼 흑자였던 경상 수지는 수출이 감소함으로써 적자(수입 > 수출) 상태에 진입할 거예요. 그럼 경상 수지 흑자를 보던 일본 입장에서는 굳이 적자를 내는 상황으로 나아가고 싶지 않겠죠.

이 상황은 다시 1문단에서 제시된 상황으로 연결됩니다. 미국이 경상 수지 적자를 허용하지 않아 세계 경제가 위축되는 상황이에요. 일본과 같은 다른 국가의 수출 비중이 줄어든다는 것은, 다른 국가에 달러화가 공급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건 미국이 경상 수지를 흑자로 돌리고자, 여타국 통화의 가치를 평가 절상하게 되는 결과입니다. 즉, 미국이 브레턴우즈 체제에서 경상 수지와 관련된 '달러화의 구조적 모순'을 극복하지 못하는 것이죠. 사실상 여기서 제시된 상황은 '트리핀 딜레마'입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사실상 경상 수지에 대한 배경지식이 없었다면 문제를 풀 때 이해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만약 이걸 현장에서 푼다면, 제시된 상황이 경상 수지와 관련되어 있고, 이도저도 못하는 딜레마에 빠졌다는 점을 토대로 트리핀 딜레마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지레 짐작하고 넘어가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해요. 다만, 우리는 지문을 통해 독해력을 쌓는 것이 목표이니 최대한 깊게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상황이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으로 독일의 마르크화와 일본의 엔화에 대한 투기적 수요가 증가했고, 결국 환율의 변동 압력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었다.

계속 문제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있어요. 지금 문제가 달러화의 과잉 공급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러화의 신뢰도가 줄어든 상황이죠. 심지어 상황도 불안하니까 당연히 달러화 말고 다른 국가의 통화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거예요.

그럼 다른 국가의 통화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니까 그 국가의 통화는 가치가 높아질 겁니다. 그런데 정작 일본이나 독일과 같은 국가들은 가치가 올라가는 걸 반대했죠? 그러니까 빨리 환율을 변동해서 문제를 해결하라고 압박을 하겠네요. 문제가 계속 심화되고 있다는 생각으로 읽어주셔야 합니다.

미국은 결국 1971년 달러화의 금 태환 정지를 선언한 닉슨 쇼크를 단행했고, 브레턴우즈 체제는 붕괴되었다.

네, 결국 달러화와 금을 중심으로 하던 브레턴우즈 체제가 붕괴됩니다. 그럼 고정 환율 제도는 같이 붕괴되겠네요! 트리핀 교수도 달러화의 과잉 공급으로 인해 붕괴될 거라고 이야기했구요.

#4문단

그러나 붕괴 이후에도 달러화의 기축 통화 역할은 계속되었다. 그 이유로 규모의 경제를 생각할 수 있다. <세계의 모든 국가에서 어떠한 기축 통화도 없이 각각 다른 통화가 사용되는 경우 두 국가를 짝짓는 경우의 수만큼 환율의 가짓수가 생긴다. 그러나 하나의 기축 통화를 중심으로 외환 거래를 하면 비용을 절감하고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다.>

브레턴우즈 체제 이후의 상황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달러화가 여전히 기축 통화라는 점, 그리고 규모의 경제를 맥락상 이해하는 것이면 충분합니다. 한 문장씩 들어갈게요.

그러나 붕괴 이후에도 달러화의 기축 통화 역할은 계속되었다.

트리핀 교수의 말과는 다르게 흘러가는 듯 합니다. 달러화가 여전히 기축 통화의 역할을 하고 있으니, 달러화를 중심으로 환율이 고정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달러화가 여전히 중심이 되어 환율의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로 규모의 경제를 생각할 수 있다.

그 이유를 바로 제시해줍니다. '규모의 경제'가 핵심이네요. 이 개념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나머지 문장들을 읽으면서 규모의 경제가 어떻게 달러화의 기축 통화 역할과 연결되는지 이해해봅시다.

〈세계의 모든 국가에서 어떠한 기축 통화도 없이 각각 다른 통화가 사용되는 경우 두 국가를 짝짓는 경우의 수만큼 환율의 가짓수가 생긴다. 그러나 하나의 기축 통화를 중심으로 외환 거래를 하면 비용을 절감하고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다.〉

두 문장 한 번에 볼게요. 생각보다 내용이 어렵진 않습니다. 정말 단순하게, 달러화가 기축 통화가 되는 게 효율적이기 때문이에요. 아무래도 기준이 하나가 잡혀있는 게 국제 거래를 할 때 효율적이겠죠? 안 그러면 정말 지문에서 말한 대로 거래를 할 때마다 환율을 계산하고 거래를 해야 하니까요. 또, 화폐도 여러 가지를 사용해야 하니까 불편할 겁니다. 이 장점 때문에 달러화가 기축 통화의 역할을 유지한다고 하네요.

그런데 규모의 경제가 무엇인지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분명 중요하겠다고 생각했는데 말이죠. 맥락상 생각해보면, 규모의 경제는 결국 비용 절감과 비슷한 개념일 거예요. 비용을 절감하고 규모의 경제를 달성한다고 하니까요. 이 정도로만 이해해주셔도 충분합니다.

#지문 총평

헤겔 지문에 이어 이 지문 또한 너무나 어렵습니다. 역대급 불수능인 만큼 만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특히 이 지문은 '트리핀 딜레마'의 정의는 물론 포인트까지 표현을 자꾸 바꿔서 제시해서 화제임에도 불구하고 핵심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문장의 구성 요소가 생략된 경우가 많아 문장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도 어려웠어요. 물론 이외에도 핵심을 명시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제시된 문장들을 보면서 그 핵심을 스스로 떠올려야 한다는 점도 어렵습니다. 통화 가치의 평가 절하·절상을 보고 환율 변동을 생각해야 하듯이요. 정말 '이해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지문이었습니다. 문제도 만만치 않고요. 헤겔과 마찬가지로 역대급 독서 지문이에요. 애도 사실 변별을 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생각하지만, 올해 수능은 이렇게 나오지 않을 거란 보장도 없으니 울며 겨자먹기로 공부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어렵더라도 천천히 공부해 봅시다.

10. 밑글을 통해 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은?

정답 : ②

- 쉬운 내용 일치 문제입니다. 트리핀 딜레마에 대해 알아보는 게 화제였습니다. 달러화의 구조적 모순에 대해 경상 수지와 연결해서 설명했죠. 화제와 전체적인 흐름 기억하면서 들어갑시다.

① 브레턴우즈 체제 붕괴 이후에도 달러화가 기축 통화로서 역할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 규모의 경제가 등장한 맥락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달러화가 기축 통화로서 작용하는 게 효율적이기 때문이었죠.

#선지 포인트 : 키워드의 등장 맥락

② 브레턴우즈 체제 붕괴 이후의 세계 경제 위축에 대해 트리핀은 어떤 전망을 했는가?

→ 트리핀은 달러화의 구조적 모순과 같은 딜레마로 인한 상황만 예측했습니다. 세계 경제가 위축되거나 고정 환율 제도가 붕괴될 거라고 했죠. 즉, 브레턴우즈 체제가 붕괴될 거라고 예측한 것이지,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한 전망은 따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선지 포인트 : 화제 중심 읽기

③ 브레턴우즈 체제에서 미국 중앙은행은 어떤 의무를 수행해야 했는가?

→ 금 태환 조항에 따라 금 1온스와 35달러를 바꾸어줄 의무가 있었습니다. 달러화가 국제 유동성으로 추가되는 맥락에서 이해했던 내용이었습니다.

#선지 포인트 : 서술의 초점과 맥락 파악하기

④ 브레턴우즈 체제에서 국제 유동성의 역할을 한 것은 무엇인가?

→ 사실상 화제를 물어보는 선지네요! 금과 달러화였죠. 그래서 달러화가 국제 유동성, 기축 통화의 역할을 할 때 발생하는 문제를 알아보는 게 지문의 화제였습니다.

#선지 포인트 : 화제 중심 읽기

⑤ 브레턴우즈 체제에서 달러화 신뢰도 하락의 원인은 무엇인가?

→ 문제 상황을 설명하는 맥락에서 등장한 내용이었습니다. 경상 수지 적자로 인한 달러화의 과잉 공급이 그 원인이었죠. 읽으면서 이해하기도 했던 내용이네요.

#선지 포인트 : 화제 중심 읽기

11. 윗글을 바탕으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 ⑤

- 사실상 내용 일치 문제입니다. 추론 문제는 지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생각하는 게 중요합니다. 트리핀 딜레마와 관련된 내용들을 물어볼 거예요. 지문에서 이해한 바를 중심으로 생각하면서 선지 판단합니다.

① 닉슨 쇼크가 단행된 이후 달러화의 고평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달러화의 평가 절하가 가능해졌다.

→ 시작부터 만만치 않습니다. 일단 브레턴우즈 체제에서는 규정상 달러화의 가치 절하가 불가능했어요. 그런데 닉슨 쇼크 이후에 브레턴우즈 체제가 무너졌습니다. 그럼 그 규정도 무효화되었을 테니까 평가 절하가 가능해지겠네요. 트리핀 딜레마 상황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물어보는 선지입니다.

② 브레턴우즈 체제에서 마르크화와 엔화의 투기적 수요가 증가한 것은 이들 통화의 평가 절상을 예상했기 때문이다.

→ 우리가 이해했던 지점을 다른 측면에서 물어보는 선지입니다. 마르크화와 엔화의 투기적 수요가 증가하기는 했어요. 우리는 이것 읽으면서 평가 절상이 될 거라고 봤죠. 그런데 사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금 태환 의무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을 해결하려면, 달러화의 평가 절하나 다른 통화의 평가 절상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달러화의 평가 절하는 애초에 규정상 불가능하니, 어쩔 수 없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여타국의 통화의 평가 절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럼 마르크화와 엔화에 대한 평가 절상이 일어날 테니, 당연히 사람들은 이 통화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겁니다. 가치가 올라간다고 하니 미리 사놔야 이익이 될 거니까요! 그럼 마르크화와 엔화의 투기적 수요 증가는, 평가 절상을 예상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근거는, 다른 대안인 달러화의 평가 절상이 규정상 불가능하다는 점이고요!

③ 금의 생산량 증가를 통한 국제 유동성 공급량의 증가는 트리핀 딜레마 상황을 완화하는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

→ 트리핀 딜레마 상황의 원인이, 금의 부족이었으니 당연히 금의 생산량 증가는 대안이 될 겁니다. 원인만 잘 파악하면서 읽었다면 쉽게 지울 수 있는 선지예요.

④ 트리핀 딜레마는 달러화를 통한 국제 유동성 공급을 중단할 수도 없고 공급량을 무한정 늘릴 수도 없는 상황을 말한다.

→ 네, 트리핀 딜레마의 정의 그 자체를 물어보는 선지입니다. 달러화 공급을 늘릴 수도, 줄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⑤ 브레턴우즈 체제에서 마르크화가 달러화에 대해 평가 절상되면, 같은 금액의 마르크화로 구입 가능한 금의 양은 감소한다.

→ 환율과 통화 가치를 잘 이해했는지 물어보는 선지입니다. 마르크화의 평가 절상이 일어나면, 구입할 수 있는 달러의 양이 늘어납니다. 그럼 '35 달러 - 금 1온스'로 고정되어 있는 브레턴우즈 체제에서는, 당연히 살 수 있는 금의 양도 증가하겠죠.

12. 미국을 포함한 세 국가가 존재하고 각각 다른 통화를 사용할 때,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정답 : ㉤

㉠ 금 본위 체제, ㉡ 브레턴우즈 체제,
㉢ 어떠한 기축 통화도 없이 각각 다른 통화가 사용되는 경우

-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축 통화의 역할을 하는 게 무엇인지 달라지는 상황이네요. ㉠에서는 금만, ㉡에서는 금과 달러화가 모두 기축 통화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은 말 그대로 기축 통화가 없는 상황이네요. 이 정도는 체크해두고 선지 판단하러 갑시다. 미국을 포함한 임의의 세 국가는 미국, A, B라고 할게요.

① ㉠에서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환율의 가짓수는 금에 자국 통화의 가치를 고정한 국가 수보다 하나 적다.

→ ㉠에서는 금을 기준으로 환율이 결정되었죠. 그러니까 세 국가 모두 금에 통화 가치를 고정합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환율의 가짓수도 3개입니다. 미국-A, 미국-B, A-B로 총 3개죠. 즉, 하나 적은 게 아니라 같다고 봐야겠습니다.

② ㉡이 붕괴된 이후에도 여전히 달러화가 기축 통화라면 ㉡에 비해 교차 환율의 가짓수는 적어진다.

→ 미국의 달러화가 그대로 기축 통화라면, 미국을 제외한 A-B 사이의 교차 환율도 그대로 하나일 겁니다. 교차 환율의 정의만 잘 기억하면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선지예요.

③ ㉢에서 국가 수가 하나씩 증가할 때마다 환율의 전체 가짓수도 하나씩 증가한다.

→ ㉢은 기축 통화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기준이 없으니 환율의 가짓수는 두 국가를 짝짓는 경우의 수만큼 생기겠네요. 사실상 조합입니다. 하나씩 증가하는 건 확실히 틀렸어요.

④ ㉠에서 ㉡으로 바뀌면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환율의 가짓수가 많아진다.

→ ㉠에서 ㉡으로 가더라도 사실상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환율의 가짓수는 그대로입니다. 기준이 금이냐 달러화냐 이 차이일 뿐이에요. ㉡일 때도 달러화를 기준으로 먼저 환율을 결정하고, 그 달러의 가치를 또 금에 고정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졌죠.

⑤ ㉠에서 교차 환율의 가짓수는 ㉡에서 생기는 환율의 가짓수보다 적다.

→ 이걸 직관적으로 판단하는 게 좋습니다. ㉠에서는 달러화가 기준으로 작용하고, ㉡에서는 그런 기준이 없으니 당연히 달러화를 기준으로 교차 환율이 자동적으로 정해지는 ㉠이 가짓수가 적을 거예요. 혹은 '규모의 경제'가 등장한 맥락을 떠올리셔도 좋습니다.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계속해서 달러화가 기축 통화로 사용되었으니까, 당연히 ㉠에서 발생하는 환율의 가짓수가 적을 거예요.

자세히 풀이하자면 이렇습니다. ㉠의 경우 달러화가 기축 통화이기 때문에 교차 환율은 A-B 사이에서만 발생하니, 한 개입니다. 반면, ㉡의 경우 ③번 선지에서도 언급했지만, 국가끼리 짜짓는 수만큼 생기게 됩니다. 즉, 미국-A, 미국-B, A-C 총 3개이죠. 그러므로 ㉠이 더 적습니다.

13. 윗글을 참고할 때, <보기>에 대한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정답 : ④

- 또 트리핀 딜레마와 관련된 내용을 물어보겠네요. 경상수지나 기축 통화, 환율 등의 개념을 중심으로 <보기> 읽어봅시다.

— <보 기> —

브레턴우즈 체제가 붕괴된 이후 두 차례의 석유 가격 급등을 겪으면서 기축 통화국인 A국의 금리는 인상되었고 통화 공급은 감소했다. 여기에 A국 정부의 소득세 감면과 군비 증대는 A국의 금리를 인상시켰으며, 높은 금리로 인해 대량으로 외국 자본이 유입되었다. A국은 이로 인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국제적 합의를 주도하여, 서로 교역을 하며 각각 다른 통화를 사용하는 세 국가 A, B, C는 외환 시장에 대한 개입을 합의했다. 이로 인해 A국 통화에 대한 B국 통화와 C국 통화의 환율은 각각 50%, 30% 하락했다.

- A국이 기축 통화국입니다. 그런데 A국의 금리가 올라가고 통화 공급이 감소했대요. A국에서 통화 공급이 줄었다는 말은 국제 유동성 공급의 감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A국의 금리 증가에 따라 외국 자본이 유입된 것은, 투기적 수요가 증가한 상황으로 볼 수 있네요. 금리를 통한 이익을 위한 수요가 늘어났으니까요. 이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A국은, A국 환율에 대한 B, C국의 환율을 감소하기로 합니다. 즉 B, C국 통화 가치의 절상을 이끌어 냈어요.

해설 Comment

투기적 수요 증가와 환율 변동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 A국 통화에 대한 투기적 수요의 증가는, 지문 해설에서 언급한 것처럼 A국 통화의 가치 절상과 그로 인한 경상수지의 적자로 연결됩니다. A국 통화의 가치가 높아지면, A국의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기 어려워지고, 이렇게 되면 A국의 수출이 줄어들기 때문이에요. 이를 막기 위해 B, C국의 환율을 줄이는 겁니다. A국에 대한 B, C국의 환율을 줄이면 B, C국 통화의 가치가 올라가니, A국의 수출이 줄어드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① A국의 금리 인상과 통화 공급 감소로 인해 A국 통화의 신뢰도가 낮아진 것은 외국 자본이 대량으로 유입되었기 때문이겠군.

→ 기축 통화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때는 과잉 공급될 때입니다. 지문을 읽을 때도, '달러화가 과잉 공급되면 흔해지니까 신뢰도가 떨어지겠다'고 이해했어요.

② 국제적 합의로 인한 A국 통화에 대한 B국 통화의 환율 하락으로 국제 유동성 공급량이 증가하여 A국 통화의 가치가 상승했겠군.

→ 여기서 국제 유동성은 A국 통화입니다. A국 통화의 공급량이 증가하면 A국 통화가 그만큼 흔해진다는 말이에요. 그럼 가치가 상승한다고 보기 어렵겠죠?

③ 다른 모든 조건이 변하지 않았다면, 국제적 합의로 인해 A국 통화에 대한 B국 통화의 환율과 B국 통화에 대한 C국 통화의 환율은 모두 하락했겠군.

→ A국 통화에 대한 B국 통화의 환율은 50% 하락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B국 통화에 대한 C국 통화의 환율이 문제네요. 일단 이건 직관적으로 푸는 게 좋습니다. A국 통화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B국 통화의 환율이 하락하는 쪽이 C국 환율보다 큼니다. 그럼 B국 통화에 대한 'C국 통화'의 비율은 합의 이전보다 올라갔겠죠. 하락폭이 B국보다 작으니까, 더 줄어든 B국에 대한 C국의 환율은 상대적으로 높아졌을 겁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합의 이전에는 A국 통화를 기준으로 한 A-B-C국 간 환율이, 1달러-100엔-1000원이라고 가정합시다. 그런데 여기서 B, C국의 통화 비율을 각각 50%, 30% 줄이게 되면 1달러를 기준으로 각각 1달러-50엔-700원이 됩니다. 그럼 B국과 C국 사이의 환율은 '100엔 : 1000원'에서 '50엔 : 700원(100엔 : 1400원)'이 되죠. 그럼 C국 통화의 비율이 합의 이전보다 늘어나게 됩니다. 즉, B국 통화에 대한 C국 통화의 환율은 증가하게 되죠.

④ 다른 모든 조건이 변하지 않았다면, 국제적 합의로 인해 A국 통화에 대한 B국과 C국 통화의 환율이 하락하여, B국에 대한 C국의 경상 수지는 개선되었겠군.

→ 일단 A국 통화에 대한 B국과 C국 통화의 환율이 줄어든 건 <보기>에서 직접적으로 언급한 정보입니다. 그럼 뒷부분을 판단해야겠네요. ③번 선지를 판단하면서 B국에 대한 C국의 환율이 줄어든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B국의 입장에서 C국의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하는 게 유리해집니다. C국 통화에 대한 B국 통화의 가치가 올라갔으니까, 더 많은 값어치의 물건을 살 수 있게 되죠. 그럼 C국의 입장에서는 B국에 대한 수출량이 늘어날 테니 B국에 대한 경상 수지는 개선될 겁니다. '수출 > 수입'일 때 흑자이니, 수출이 늘면 경상 수지가 개선된다고 볼 수 있겠죠?

⑤ 다른 모든 조건이 변하지 않았다면, A국의 소득세 감면과 군비 증대로 A국의 경상 수지가 악화되며, 그 완화 방안 중 하나는 A국 통화에 대한 B국 통화의 환율을 상승시키는 것이겠군.

→ 소득세 감면과 군비 증대에 대한 대응으로 A국 통화에 대한 B국 통화의 환율을 50% 줄였죠. 선지 자체는 간단하게 판단할 수 있네요.

[14~17]

문장 단위 해설 - #1문단

주차하거나 좁은 길을 지날 때 운전자를 돕는 장치들이 있다. 이 중 차량 전후좌우에 장착된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을 이용하여 차량 주위 360°의 상황을 위에서 내려다본 것 같은 영상을 만들어 차 안의 모니터를 통해 운전자에게 제공하는 장치가 있다. 운전자에게 제공되는 영상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아보자.

시작이 친절하네요. 화제와 관련된 예시를 들며 마지막에는 화제도 예쁘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똑같은 방식의 구성으로는 21.06 영상 안정화 기술이 있어요. 기억나시죠? 여기서 딱 화제 하나 생각하면서 넘어가시면 충분합니다. 그럼 한 문장씩 볼게요.

주차하거나 좁은 길을 지날 때 운전자를 돕는 장치들이 있다.

개념이나 이론적인 내용이 아니라 예시 상황을 들어주고 있죠? ‘운전자를 돕는 장치’가 핵심이네요. 이 장치에 대해서 알아보는 게 화제이겠습니다. 이 장치가 무엇인지 궁금해 하면서 다음 문장으로 넘어갑니다.

이 중 차량 전후좌우에 장착된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을 이용하여 차량 주위 360°의 상황을 위에서 내려다본 것 같은 영상을 만들어 차 안의 모니터를 통해 운전자에게 제공하는 장치가 있다.

앞에서 본 그 장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후좌우에 장착된 카메라’를 통해 ‘위에서’ 내려다보는 듯한 ‘영상’이 그거네요. 실제로 최신 차량을 보면 주차할 때 저런 영상을 띄워주기도 하죠? 예시가 나왔으니 그 예시들을 직접 떠올리면서 읽어봅시다. 혹시나 이게 머릿속에서 잘 그려지지 않거나 예시를 못 떠올리겠다면 직접 검색해서 찾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아무튼 여기서 ‘운전자를 돕는 장치’가 영상이라는 점을 기억하면서 넘어 가봅시다.

운전자에게 제공되는 영상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아보자.

네, 그렇게 화제까지 깔끔하게 제시해주면서 문장이 끝나네요. 사실상 재진술 문장이죠. 영상의 제작 원리가 이 지문의 화제가 되겠습니다. 이 문장을 읽을 때는, 새로운 걸 파악한다기 보다는 앞에서 했던 생각을 구체화해주는 느낌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설 Comment

잠깐이라도 좋으니 이 지문의 1문단과 영상 안정화 기술 지문의 1문단이 어떻게 비슷한지 확인하면서 느끼시길 바라겠습니다!

*참고 : 2021.06 영상 안정화 기술

일반 사용자가 디지털 카메라를 들고 촬영하면 손의 미세한 떨림으로 인해 영상이 번져 흐려지고, 걷거나 뛰면서 촬영하면 식별하기 힘들 정도로 영상이 흔들리게 된다. 흔들림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하는 기술이 영상 안정화 기술이다.

#2문단

먼저 ① 차량 주위 바닥에 바둑판 모양의 격자판을 펴 놓고 카메라로 촬영한다. <이 장치에서 사용하는 광각 카메라는 큰 시야각을 갖고 있어 사각지대가 줄지만 빛이 렌즈를 지날 때 렌즈 고유의 곡률로 인해 영상이 중심부는 볼록하고 중심부에서 멀수록 더 휘어지는 현상, 즉 렌즈에 의한 상의 왜곡이 발생한다.> 이 왜곡에 영향을 주는 카메라 자체의 특징을 내부 변수라고 하며 왜곡 계수로 나타낸다. ②-1 이를 알 수 있다면 왜곡 모델을 설정하여 왜곡을 보정할 수 있다. 한편 차량에 장착된 카메라의 기울어짐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왜곡의 원인을 외부 변수라고 한다. ②-2 촬영된 영상과 실세계 격자판을 비교하면 영상에서 격자판이 회전한 각도나 격자판의 위치 변화를 통해 카메라의 기울어진 각도 등을 알 수 있으므로 왜곡을 보정할 수 있다.

영상을 만드는 과정을 설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과정 보다는 영상을 만드는 원리, 관련된 개념을 설명하는 문단입니다. 특히, 격자판을 촬영하고, 그 격자판을 이용해서 왜곡을 보정하는 흐름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 내부 변수, 왜곡 계수, 왜곡 모델, 외부 변수의 개념을 잘 이해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얼핏 보면 굉장히 헷갈리기 때문이에요. 정리하자면, 키워드에 대한 이해, 과정 잡기가 중요한 문단입니다. 자세한 건 한 문장씩 보면서 설명할게요.

먼저 ① 차량 주위 바닥에 바둑판 모양의 격자판을 펴 놓고 카메라로 촬영한다.

운전자에게 제공되는 '영상'이 어떻게 제작되는지 그 원리에 대해 설명하려나 봅니다. 서술의 초점 잡고 들어가야겠죠? 그리고 '격자판'이 어떻게 영상 제공에 이용될지도 생각합니다.

<이 장치에서 사용하는 광각 카메라는 큰 시야각을 갖고 있어 사각지대가 줄지만 빛이 렌즈를 지날 때 렌즈 고유의 곡률로 인해 영상이 중심부는 볼록하고 중심부에서 멀수록 더 휘어지는 현상, 즉 렌즈에 의한 상의 왜곡이 발생한다.>

아주 문장이 깊습니다. 그래도 차분히 읽으면 이해하는 것 자체가 어렵진 않아요. 일단, '이 장치'라는 건, 영상을 촬영할 때 이용되는 카메라일 겁니다. 그때 이용되는 카메라가 '광각' 카메라이고, 큰 시야각을 갖는다고 해요. 광/각//카메라니까 당연히 '큰' 시야각을 갖겠죠? 스마트폰에도 광각 카메라가 보통 달려있잖아요. 그때 광각 카메라로 촬영하면 기본 카메라보다 훨씬 넓게 찍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말 그대로 '큰' 시야각을 가지니, 촬영이 안 되는 사각지대도 줄겠습니다. 그럼 확실히 전후좌우로 달려있을 때 운전자가 360도로 대부분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겠네요. 각 카메라가 넓은 시야각을 가지니까요!

그런데 이 광각 카메라는 문제도 있습니다. 곡률 때문에 영상이 휘어 보이게 촬영된다고 하네요. 이걸 렌즈에 의한 상의 '왜곡'이라고 합니다. 재진술 정의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키워드도 키워드 같지 않게 제시되어 있으니 주의합시다!

사실 이 내용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해요. 렌즈가 중심부에서 멀수록 '휘어지는' 현상이니까, 상의 '왜곡'인 것이죠. 단어 뜯기로 이해하면서 읽어주면 굳이 정보로 받아들이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읽는 방법이 가장 좋아요.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죠? 마찬가지로 폰 카메라를 생각해 보면, 일반 카메라일 때보다 광각 카메라 일 때 사진이 더 휘어보입니다.

이 왜곡에 영향을 주는 카메라 자체의 특징을 **내부 변수**라고 하며 **왜곡 계수**로 나타낸다.

상의 왜곡과 관련된 개념이 등장합니다. 앞에서 광각 카메라로 영상을 찍을 때 상의 왜곡이 발생했어요. 그 이유는 렌즈 자체의 곡률 때문이었죠? 이렇게 ‘카메라 자체’의 특징으로 인해서 왜곡이 발생할 때 그 변수를 ‘내부 변수’라고 합니다. 카메라 자체의 내부적 문제이니깐 내부//변수이네요. 그리고 이 내부 변수는 ‘왜곡 계수’로 나타나네요. 내부 변수는 ‘왜곡’을 발생시키는 요소이니 왜곡//계수로 나타나나 봅니다. 같은 군집으로 묶어주고 넘어갈게요. 전체적으로 단어 뜯기로 키워드의 의미를 살리면서 읽는 게 중요한 문장이었어요.

②-1 이를 알 수 있다면 **왜곡 모델**을 설정하여 왜곡을 보정할 수 있다.

왜곡 계수를 알 수 있으면 ‘왜곡 모델’을 통해 보정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내부 변수로 인한 왜곡의 해결 방안입니다. 하긴 왜곡의 원인을 ‘왜곡 계수’로 나타내니, 왜곡 계수를 안다는 건 그 원인을 안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 원인을 알면 당연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죠? 자연스럽게 ‘내부 변수 · 왜곡 계수 - 왜곡 모델’이 ‘문제 - 대안’이라는 걸 파악하셔야 합니다.

한편 차량에 장착된 카메라의 기울어짐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왜곡의 원인을 **외부 변수**라고 한다.

이번에는 ‘외부 변수’가 제시됐네요. 그런데 정의를 되게 애매하게 줍니다. 예시를 하나 주고 외부 변수를 설명하네요. 숨겨진 정의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정의가 무엇인지 떠올리셔야 해요. 일단 키워드를 보니 딱봐도 ‘내부 변수’랑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내부 VS 외부’이니깐요. 그렇게 생각하고 예시를 보니, ‘카메라의 기울어짐’과 같은 요소는 카메라 자체의 문제가 아니죠? 말 그대로 카메라 이외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외부’ 변수이네요. 내부 변수와의 비교지점도 잡을 수 있습니다. ‘변수 종류’가 달라요. 카메라 자체의 문제냐, 카메라 이외의 문제이냐가 핵심이네요. 정의 이해하고 비교지점까지 잡고 넘어갑시다.

②-2 촬영된 영상과 실세계 격자판을 비교하면 영상에서 격자판이 회전한 각도나 격자판의 위치 변화를 통해 카메라의 기울어진 각도 등을 알 수 있으므로 **왜곡을 보정**할 수 있다.

아주 중요한 문장입니다. ①번 과정에서 격자판을 펼쳐놓고 영상을 촬영한다고 했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왜곡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그 왜곡을 보정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영상과 ‘실세계 격자판’을 비교하면서 왜곡을 보정한다고 해요. 이때의 원리는 ‘카메라의 기울어진 각도’를 파악해서 보정하는 건데, 이걸 ‘외부 변수’였습니다. 앞에서는 내부 변수와 그에 대한 대안을, 여기서는 외부 변수와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과정이 꽤나 복잡합니다. 촬영을 하고(①), 거기서 나타난 변수를 두 가지 범주로 구분한 후 각각에 대한 방안(②)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생각의 끈을 조금이라도 놓치면 금방 헷갈려버리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해요!

#3문단

왜곡 보정이 끝나면 ③ 영상의 점들에 대응하는 3차원 실세계의 점들을 추정하여 이로부터 원근 효과가 제거된 영상을 얻는 시점 변환이 필요하다. <카메라가 3차원 실세계를 2차원 영상으로 투영하면 크기가 동일한 물체라도 카메라로부터 멀리 있을수록 더 작게 나타나는데,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점의 영상에서는 거리에 따른 물체의 크기 변화가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짧지만 생각 없이 읽으면 또 복잡한 문단입니다. 앞에서는 촬영할 때의 문제와 그걸 보정하는 방법을 살펴봤다면 여기서는 촬영된 영상에서 원근 효과를 제거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 포인트만 잡으면 읽을만 해요. 마지막 문장이 길긴 하지만 재진술이기도 하니깐요. 과정과 핵심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곡 보정이 끝나면 ③ 영상의 점들에 대응하는 3차원 실세계의 점들을 추정하여 이로부터 원근 효과가 제거된 영상을 얻는 시점 변환이 필요하다.

‘왜곡 보정이 끝나면’이라는 말은 곧 ②번 과정 이후라는 뜻입니다. 과정에 주목하셔야 해요. 그리고 이번에는 세 번째 과정인 ‘시점 변환’에 대해 알아보네요. 서술의 초점 잡읍시다. 이 시점 변환은 ‘원근 효과’를 없애는 과정이네요. 그리고 그 원리에는 또 격자판이 이용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3차원 실세계의 점’은 ①번 과정에서부터 나온 격자판 위의 점이라는 걸 파악하셔야 해요. ‘점’은 결국 좌표 위의 점을 뜻할 테니, 격자판을 떠올리셔야 합니다.

<카메라가 3차원 실세계를 2차원 영상으로 투영하면 크기가 동일한 물체라도 카메라로부터 멀리 있을수록 더 작게 나타나는데,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점의 영상에서는 거리에 따른 물체의 크기 변화가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사실상 시점 변환 과정에 대한 재진술입니다. 말이 어렵지만 결국 포인트는 하나입니다. ‘영상 촬영할 땐 원근 효과가 일어난다. 그런데 위에서 내려다 볼 땐 원근 효과가 없어야 한다.’ 그러니까 당연히 ‘시점 변환’이 필요하겠죠. 시점을 바꾸면서 원근 효과를 제거하는 게 시점 // 변환입니다.

조금 깊게 이해해볼게요. 일단 여기서 영상을 촬영하는 건 ‘전후좌우’에 달린 카메라입니다. 그런데 운전자에게 제공되는 ‘영상’은 전후좌우의 4가지 장면을 보여주는 게 아니죠. 전후좌우의 장면을 합쳐서 ‘위에서 내려다보는’ 영상이 제공됩니다. 그럼 촬영된 영상의 시점은 전후좌우입니다. 왼쪽에서 바라보는 것, 오른쪽에서 바라보는 것, 좌측에서 바라보는 것, 우측에서 바라보는 것. 이게 각각의 장면으로 제공되죠. 그러니까 시점이 다 달라요. 이걸 종합해서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점’으로 바꾸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전후좌우에서 촬영한 시점의 원근 효과는 당연히 없어야겠죠. 위에서 내려다볼 때의 영상에서, 왼쪽에서 바라봤을 때의 원근 효과가 있으면 안 되니까요.

#4문단

왜곡이 보정된 영상에서의 몇 개의 점과 그에 대응하는 실세계 격자판의 점들의 위치를 알고 있다면, 영상의 모든 점들과 격자판의 점들 간의 대응 관계를 가상의 좌표계를 이용하여 기술할 수 있다. ④ 이 대응 관계를 이용해서 영상의 점들을 격자의 모양과 격자 간의 상대적인 크기가 실세계에서와 동일하게 유지되도록 한 평면에 놓으면 2차원 영상으로 나타난다. 이때 얻은 영상이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점의 영상이 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구한 각 방향의 영상을 합성하면 차량 주위를 위에서 내려다본 것 같은 영상이 만들어진다.

이해하기 정말 어려운 문단입니다. 3문단과 연결해서 생각해야 하는 중요한 문단이에요. 3문단에서 제시한 시점 변환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2문단에서부터 나오던 격자판을 떠올리셔야 합니다. '실세계 격자판'을 중심으로 가상의 좌표계를 만들어서 시점 변환을 하는 그 과정을 설명하는 겁니다.

왜곡이 보정된 영상에서의 몇 개의 점과 그에 대응하는 실세계 격자판의 점들의 위치를 알고 있다면, 영상의 모든 점들과 격자판의 점들 간의 대응 관계를 가상의 좌표계를 이용하여 기술할 수 있다

문장이 긴데 불친절해요. 무엇을 기술하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그럼 3문단을 떠올릴 수 있죠. 시점 변환의 원리를 설명한다는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보면 '왜곡이 보정된 영상'을 다시 처리하는 것이니까요. 즉, ②번 과정을 마친 이후의 사후 처리입니다. '왜곡이 보정된 영상'은 아직 시점 변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영상입니다! 시점 변환이 왜곡을 보정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②번 과정을 마친 후 ③번 과정, 시점 변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는 점을 파악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읽어보니, 왜곡 보정 영상과 '격자판'의 점과 영상의 점을 대응시켜 '가상의 좌표계'를 다시 만들고, 그걸 통해서 시점 변환을 한다는 말이네요. 이번에도 '격자판'이 이용된

다는 걸 생각합시다. 실세계 격자판은 말 그대로 영상을 촬영할 때부터 이용된 '실제 세계'의 격자판(앞에서부터 나왔죠)이고, 가상의 좌표계는 그 실세계 격자판과 영상의 점을 대응시켜 만든 '가상'의 좌표계입니다.

④ 이 대응 관계를 이용해서 영상의 점들을 격자의 모양과 격자 간의 상대적인 크기가 실세계에서와 동일하게 유지되도록 한 평면에 놓으면 2차원 영상으로 나타난다.

대응 관계를 이용한다는 건 역시나 가상의 좌표계를 이용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때 '실세계와 동일'하게 유지된다는 건 '시점 변환'이 이루어졌다는 뜻일 거예요. 이 문장에서 말하는 '영상의 점들'에서 '영상'은 아직 원근 효과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걸 '실세계'와 동일하게 만드는 과정을 설명하는 문장입니다. 그럼 이게 곧 시점 변환 과정이겠네요! 시점 변환을 통해 '원근 효과'가 사라져야 실세계와 동일해질 테니까요. 혹은, 대응 관계가 '실세계 좌표계'를 이용한 것이니 실세계와 동일해 진다고 생각해도 좋겠습니다.

이때 얻은 영상이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점의 영상이 된다.

네, 앞 문장만 보고 시점 변환을 떠올리기 어려울까봐 재진술해줍니다. 여기서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점의 영상 = 시점 변환을 마친 영상'을 떠올려주셔도 충분해요. 문제를 풀 때 우리의 이해를 도와주는 아주 중요한 문장입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구한 각 방향의 영상을 합성하면 차량 주위를 위에서 내려다본 것 같은 영상이 만들어진다.

카메라는 전후좌우에 달려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영상 4개를 같은 방식으로 보정하고, 그 영상들을 종합하면 최종적으로 운전자가 보는 영상이 만들어집니다. 위에서 볼 땐 전후좌우가 다 보여야 하니까 4개의 영상이 모두 필요하겠죠?

#지문 총평

짧지만 만만한 지문은 아닙니다. 과학/기술 지문에서는 과정을 통한 원리 이해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지문은 과정을 아주 헛갈리게 제시했어요. 2문단에서 과정을 파악하는 것, 그리고 3, 4문단의 과정을 정확히 이해하는 게 꽤나 어렵습니다. 지문에서 요구하는 바는 기본적인 태도이지만 그걸 묻는 방식이 쉽지 않네요. 그리고 첫 번째 과정부터 나오던 '격자판'이라는 개념이 계속 이용된다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각 과정을 이해할 때 '격자판'을 계속 떠올려야 해요. 개인적으로 좋은 지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에 충실하지만, 이해하기 어렵게 만들었어요. 정보량으로 찍어 누르지도 않고, 말 그대로 '생각'을 하면서 읽어야만 이해할 수 있는 글입니다. 2022 수능에서 유일하게 그나마 평이한(?) 지문이지 않나 싶습니다.

14.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정답 : ④

- 영상을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물어보겠네요. 그 과정에서 잡았던 비교지점도 있죠? 직접적인 비교지점이 하나밖에 없으니 같이 생각하면서 선지 판단합니다. 혹은 선지에서 물어볼 때 놓치지 않고 떠올릴 수 있어야 해요.

- ① 차량 주위를 위에서 내려다본 것 같은 영상은 360°를 촬영하는 카메라 하나를 이용하여 만들어진다.

→ 원리 자체를 이해했나 물어보는 선지입니다. 전후 좌우를 광각 카메라로 촬영했습니다. 그 영상들을 보정하고 합성해서 최종 영상을 만들었죠.

#선지 포인트 : 화제 이해하기

- ② 외부 변수로 인한 왜곡은 카메라 자체의 특징을 알 수 있으면 쉽게 해결할 수 있다.

→ 내부 변수와 외부 변수의 비교지점을 잘 이해했다면 바로 지울 수 있습니다. 카메라 자체의 특징으로 인한 왜곡은 '내부' 변수가 원인이었죠. 외부 변수는 카메라 이외의 문제였고요.

#선지 포인트 : 내부 변수와 외부 변수의 비교지점

- ③ 차량의 전후좌우 카메라에서 촬영된 영상을 하나의 영상으로 합성한 후 왜곡을 보정한다.

→ 과정을 잘 이해했는지 묻는 선지입니다. 영상 보정을 먼저 하고 시점 변환까지 한 후에 영상을 합성했습니다.

#선지 포인트 : 과정 이해하기

- ④ 영상이 중심부로부터 멀수록 크게 휘는 것은 왜곡 모델을 설정하여 보정할 수 있다.

→ 내부 변수와 왜곡 모델을 물어보는 선지입니다. 영상이 중심부를 기준으로 멀어질수록 휘는 건 렌즈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였죠. 이게 내부 변수예요. 그리고 내부 변수는 왜곡 모델을 통해 해결한다고 했습니다. 내부 변수의 정의, 그리고 문제 - 대안 관계만 잘 파악했다면 쉽게 고를 수 있는 선지네요.

#선지 포인트 : 내부 변수의 정의, 문제 - 대안 관계

- ⑤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점의 영상에 있는 점들은 카메라 시점의 영상과는 달리 3차원 좌표로 표시된다.

→ ④번 과정에 대한 선지입니다. 위에서 내려다보는 영상도 똑같이 '2차원'의 영상으로 만들어집니다. 애초에 '영상'이니까 당연히 2차원이겠죠.

#선지 포인트 : 과정 이해하기

15. ㉠~㉣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 : ㉡

- ㉠ 촬영된 영상, ㉡ 왜곡이 보정된 영상,
- ㉢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점의 영상

- 우리가 열심히 읽었던 과정에 대해 물어 보는 영상입니다. 영상을 촬영하고, 내부, 외부 변수로 인한 왜곡을 보정하고, 그 영상을 다시 가상의 좌표계를 통해 시점 변환을 했죠. 각 과정에 따른 포인트들을 물어보겠습니다. 선지에서 물어볼 때 이 포인트들을 바로 떠올릴 수 있어야 해요.

① ㉠에서 광각 카메라를 이용하여 확보한 시야각은 ㉡에서는 작아지겠군.

→ ㉡이 포함된 점은 ㉠에서 내부·외부 변수로 인한 왜곡을 보정한 영상입니다. 그런데 그 왜곡을 보정할 때 '시야각'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시야각이 변한다는 건 영상에 나오는 범위가 줄어야 한다는 뜻인데, 그건 아니니까요. 단순히 휘어짐이나 기울어짐을 보정하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② ㉡에서는 ㉠과 마찬가지로 렌즈와 격자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격자판이 작아 보이겠군.

→ 격자판의 거리나 모양을 수정하는 건 시점 변환 과정이었습니다. ㉡은 아직 시점 변환이 일어나기 전의 영상에 포함된 점이니까 맞는 말이네요.

③ ㉡에서는 ㉠에서 렌즈와 격자판 사이의 거리에 따른 렌즈의 곡률 변화로 생긴 휘어짐이 보정되었겠군.

→ ㉡에서 렌즈 곡률로 인한 휘어짐이 보정된 건 맞습니다. 근데 그게 렌즈와 격자판 사이의 거리 때문인 건 아니죠? 곡률 변화로 인한 휘어짐은 '내부 변수'입니다. 카메라 자체의 특징인 거예요. 사실상 내부 변수만 잘 이해했다면 쉽게 지울 수 있는 선지입니다. 물론 이 포인트를 떠올리지 못한다면 어렵지만요.

#선지 포인트 : 내부 변수의 정의

④ ㉡과 실세계 격자판을 비교하여 격자판의 위치 변화를 보정한 ㉢은 카메라의 기울어짐에 의한 왜곡을 바로잡은 것이겠군.

→ ㉢은 시점 변화를 보정한 영상이죠! 카메라의 기울어짐에 의한 왜곡은 외부 변수로 인한 문제이고, 이건 ㉡에서부터 해결됐습니다.

⑤ ㉡에서 렌즈에 의한 상의 왜곡 때문에 격자판의 윗부분으로 갈수록 격자 크기가 더 작아 보이던 것이 ㉢에서 보정되었겠군.

→ 원근 효과가 보정되는 건 맞는데, 그게 렌즈에 의한 상의 왜곡 때문에 발생한 건 아닙니다. 렌즈에 의한 상의 왜곡은 외부 변수로 ㉡에서 이미 보정된 사항입니다. 주의하셔야 해요.

해설 Comment

이 문제는 선지의 앞, 뒷부분을 맞는 말과 틀린 말로 교묘히 섞어두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답이 안 보이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비슷한 유형으로는 21학년도 수능 예약 지문의 <보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적절하지 않은’ 걸 찾는 경우였지만 여기선 ‘적절한’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거법도 잘 안 먹힐 수 있어요. 주의하셔야 합니다. 선지를 판단하는 능력을 키워야 이런 문제를 무사히 풀 수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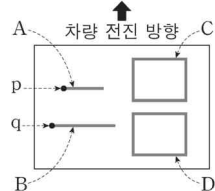
16.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탐구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정답 : ④

- 위에서 내려다보는 영상이 제작되는 과정을 물어보겠죠? <보기>에서 물어보는 과정이 어떤 단계인지, 그 포인트들을 잘 기억하면서 해석해야 합니다.

— < 보 기 —

그림은 **장치**가 장착된 차량의 **운전자에게 제공된 영상에서 전방 부분만 보여 준 것이다.** 차량 전방의 바닥에 그려진 네 개의 도형이 영상에서 각각 A, B, C, D로 나타나 있고, C와 D는 직사각형이고 크기는 같다. p와 q는 각각 영상 속 임의의 한 점이다.



- <보기>에서 잡을 포인트가 많지는 않습니다. 운전자에게 제공된 영상이니, 왜곡 보정과 시점 변환이 모두 이루어진 영상일 겁니다. 즉, 휘어짐과 원근 효과가 있었을 텐데, 그걸 모두 제거했다는 뜻이죠. 그리고 제시된 그림이 ‘전방’ 부분이니, A, C가 뒤, B, D가 앞이라는 생각도 같이 해봅시다!

① 원근 효과가 제거되기 전의 영상에서 C는 윗변이 아랫변보다 긴 사다리꼴 모양이다.

→ 원근 효과가 있다면, 가까이 보이는 ‘밑변’이 더 길어 보여야 할 겁니다. 윗변은 운전자 입장에서 더 멀리 있는 부분니 작게 보여야 하겠죠? 간단하네요.

② 시점 변환 전의 영상에서 D는 C보다 더 작은 크기로 영상의 더 아래쪽에 위치한다.

→ 시점 변환 전이라는 건 원근 효과가 제거되기 전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D는 가까이 있으니 더 큰 크기로 존재해야겠죠. ①번 선지랑 똑같은 포인트를 물어보네요.

③ A와 B는 p와 q 간의 대응 관계를 이용하여 바닥에 그려진 도형을 크기가 유지되도록 한 평면에 놓은 것이다.

→ 시점 변환 과정에 대해 묻는 선지입니다. p와 q간의 대응관계가 아닙니다. 크기를 유지하는 건, 원근 효과를 제거한다는 말이죠? 그리고 이때는 영상의 점(p, q)들과 실세계 격자판의 점들 간의 대응 관계를 통해 크기를 보정합니다. 과정과 그 원리를 잘 이해해야 하는 선지였어요.

④ B에 대한 A의 상대적 크기는 가상의 좌표계를 이용하여 시점을 변환하기 전의 영상에서보다 더 커진 것이다.

→ B가 A보다 앞에 있습니다. 그럼 B에 대한 A의 상대적 크기는 더 작을 거예요. 앞에 있는게 크게 보이고 뒤에 있을수록 작게 보이니까요. 그리고 <보기>의 그림은 이 원근 효과가 보정된 영상입니다. 그럼 시점 변환 이전에는 더 A가 작았겠죠. 원근 효과 때문이에요! 계속 비슷한 포인트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 ⑤ p가 A 위의 한 점이라면 A는 p에 대응하는 실 세계의 점이 시점 변환을 통해 선으로 나타난 것이다.

→ 시점 변환은 원근 효과를 제거하는 것이지, 점을 선으로 바꾸는 과정이 아닙니다! 시점 변환이 무엇이지만 잘 파악했다면 쉽게 지을 수 있네요.

17. 문맥상 ㉔의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정답 : ①

- ① 그때 동생이 탄 버스는 교차로를 지나고 있었다.
② 그것은 슬픈 감정을 지나서 아픔으로 남아 있다.
③ 어느새 정오가 훌쩍 지나 식사할 시간이 되었다.
④ 물의 온도가 어느점을 지나 계속 내려가고 있다.
⑤ 가장 힘든 고비를 지나고 나니 마음이 가뿐하다.